

2019년 겨울호 vol.157

2019 이화인의 밤
북미주지회연합회, 아시아지회연합회 개최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사지숙 동창
이화가족성탄예배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표지사진
황규호(도교 교육학과 교수)
대강당의 서설(2010)

편집위원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부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
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8, 편집위원)
조성아(정의 88,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8, 편집위원)

발행 2020년 1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택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0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2019 이화인의 밤
23만 이화 동창들의 화합과 소통의 잔치
- 06 2019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또 하나의 밀알을 뿌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이화 동창들!
- 10 아시아지회연합회 발족식
이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의 첫걸음 내딛어
- 11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몸으로 전달한 그리스도의 복음
- 12 2019 이화가족 성탄예배
“어려운 발걸음마다 이화의 손 잡아 주소서”
- 14 올해의 이화인 ‘이올’ 연합모임
이화 정신 되새기며 사회봉사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 16 2019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
이화 사랑으로 충만한 이화인이 되기를 빌며
- 17 축하합니다
장 상 동창 외
- 18 아름다운 이화인
설원복지재단 상임이사 사지숙 동창
- 22 이화비즈
(주)에프앤씨 오브엠의 부사장 겸 디자인연구소 소장 이소연 동창
- 26 이화의 이곳저곳
환자 중심의 첨단 스마트 병원 이대서울병원
- 29 총동창회 소식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아시아지회연합회 발족식 참석 외
- 33 선교부 소식
제40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
- 35 행운 선물 목록
'이화인의 밤' 행사를 위해 행운 선물을 기증해 주신 분
- 36 모교 소식
세계가 보는 한반도 통일 문제, '제6회 윤후정 통일포럼' 개최 외
- 39 대학(원) 소식
자연과학대학 외
- 42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 49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 59 동창 근황
엄정윤 동창 외
- 69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 70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 70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19 이화인의 밤

23만 이화 동창들의 화합과 소통의 잔치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2019 이화인의 밤’ 행사가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 6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화인의 밤’은 23만 이화 동창들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동창 간

남상택 총동창회장



소통과 공감을 나누고, 모교 사랑의 마음을 보여 주는 연중 가장 큰 총동창회의 행사이다. 1부 만남과 2부 만찬, 3부 작은 음악회, 4부 행운 잔치로 3시간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 장상·이배용·신인령·김선옥 전 모교 총장, 조종남 전 총동창회 고문, 김순영·이경숙·김영주 총동창회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 최대석 모교 대외부총장, 문병인 모교 의무부총장, 이명경·조미숙 총동창회 부회장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한 1,200여 명의 이화 동창이 참석하였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에 사지숙 동창 선정

1부는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주님과 함께 아름다움이 넘치는 밤이 되게 해 달라”는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기도로 이어졌다. 다음 순서로 단상에 오른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 조종남 전 고문, 김순영·이경숙·김영주 고문(사진 왼쪽부터)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뜻 깊은 자리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이화인이기에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라면서 “해외에서 이화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어져 아시아지회 연합회가 발족되었고, 10월에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지난 3월에 첫발을 내딛은 제18대 총동창회는 큰 사랑을 베풀고 있는 23만 이화 동창들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화합과 도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제13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로 선정된 사지숙(교육 55) 동창은 아동 보육시설 ‘안양의 집’과 ‘안양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설원복지재단 상임이사이다. 사지숙 동창은 지난 70여 년간 전쟁고아들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안의 불우한 아동들을 보살펴 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가도록 교육자로서 최선의 헌신을 다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작하여 ‘요벨관악단’을 창설하였고, 거의 전례가 없었던 대학 진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72명이 대학에 진학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2010년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2018년 사회복지 사업부문 동백장 국민훈장을 수상하였다.

사지숙 동창은 “수십 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습니다만, 이화여자대

학교 졸업생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살았다고, 총동창회에서 칭찬해 주는 ‘아름다운 이화인’ 상이야말로 제가 받은 상 중에서 가장 빛나는 상

인 것 같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인사말을 대신하여 안양의 집 소식지에 실렸던 글을 차분히 낭송하자, 참석한 동창들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박수로 화답하였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이화 동창을 찾아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총동창회에서 제정한 상으로, 2018년에는 어렵게도 수상자를 내지 못했던 터라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상패와 상금 1,000만 원, 아라가야 한복상품권 1매를 사지숙 동창에게 전달하였다. 사 동창은 상금 1,000만 원을 총동창회에 다시 기증하여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아름다운 곳에 찾아서 쓰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사지숙 동창

모교발전기금 2억 5,000만 원 모교에 전달

한편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지난 1년간 이화 동창들이 모은 모교발전기금 2억 5,000만 원을 김혜숙



윗줄
장상·이배용·신인령·
김선옥 전 총장

아랫줄
이명경·조미숙 부회장,
최대석 모교 대외부총장,
문병인 모교 의무부총장
(사진 왼쪽부터)

모교 총장에게 전달했다. 김혜숙 총장은 “2019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되어 4년간 70억, 평가 후 2년간 40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학관이 첨단의 교육시설로 재탄생될 것이며, AI 대학원 설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전하였다. 이대서울병원에서는 스마트 병원을 표방하며 로봇수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음도 덧붙였다. 또한 동창들이 ‘이화 어게인’이라는 가치 아래서 평생교육원에서 새로 만든 프로그램 이화 U3A 아카데미에 많이 참여하여 노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부 만찬은 허현미(체육 89) 총동창회 전 회우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건배 제의를 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은 “좋은 대학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졸업생들이 얼마나 모교를 뜨겁게 사랑하는가”라면서 “우리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을 잔에 담아 건배하자”고 말하며 ‘이화’를 선창하였다. 참석한 동창들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큰 소리로 외치고 서로 잔을 부딪치며 흥겨운 만찬 시간을 가졌다.

다채로운 공연과 흥겨운 행운 잔치 함께 즐겨

3부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이어졌다. 먼저 조형예술대학 동창합창단(단장: 신영선·장미 88) 13명이 화려한 의상과 현란한 울동으로 무대를 압도하며 〈써니〉와 〈댄싱퀸〉으로 음악회의 문을 열자, 장내는 축제 분위기로 변했다. 평균 연령 55세, 10분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한 달간 10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열정의 무대였다. 두 번째 순서로 등장한 이화발레앙상블은, 작품 〈You Raise Me Up〉과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통해 이화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다. 참석자들은 곧 오실 성탄, 메시아를 맞이하는 설렘과 기쁨으로 감동적인 무대에 빠져들었다. 모교 무용과 신은경(무용 78) 교수의 안무와 지도로, 무용과 졸업생 이은미(무용 11)·임지은(무용 13) 동창이 열연하였다. 이들은 12월 14일(토) 모교 대강당 무대에 올린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에서 각각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를 맡아, 다음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마지막 무대는 가수 윤형주 씨의 미니 콘서트로 꾸며졌다. 40분 동안 계속된 축하 공연에서는 추억의 에피소드와 함께 〈조개껍질 묶어〉

를 시작으로 <웨딩케잌> <캐럴> <광고 음악 매들리>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르자 동창들은 함께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4부는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행운 선물 추첨 시간. 앞서 2부 마지막에 문병인 의무부총장, 윤순희 전 고문, 김순영·이경숙 고문과, 이명경·조미숙 부회장 및 김영주 고문의 순서로 기증품 추첨이 있었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4부에서는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전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김혜숙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기증한 물건의 추첨이 진행되었다. 이 밖에 더 많은 기증품에 대한 당첨자 명단 발표가 스크린을 통해 흘러나오자 참석한 동창들은 진행자의 발표에 몰입하면서 환호와 탄성을 터뜨렸다. 열기에 더하여 김영주 고문이 가장 율동을 크게 한 테이블에 상품권을 돌리겠다고 하자, 동창들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형광 봉이나 냅킨을 흔들며 열띤 호응을 하였는데, 총동창회 선물로 받은 빨간 우산을 펼치며 강렬한 인상을 준 정외과 테이블에 행운이 돌아갔다. 또한 “매년 등장하는 노트북 선물에 꽂혀 언젠가는 꼭 타고 싶었는데 당첨되어 너무 기쁘다”는 동창이 있었고,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물리학과 졸업 50주년을 맞은 선배님 아홉 분이 오셨는데 그중 한 명이 당첨되었다”고 발표하자 참석자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며 축하였다.

멀리 해외 지회에서 참석한 동창도 눈에 띠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으로 시애틀에서 온 신경립(장미 80) 지회장은 언니 신인순(교육 68) 동창과 앉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초대받아 기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강미경(생미 88) 베이징 지회장은 “모두 어디서 뵈 분 같고, 애교심이 자라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화인의 밤 행사는 우숙영



조형예술대 동창합창단과 가수 윤형주 씨, 이화발레양상불의 축하 공연

(피아노 87) 동창의 반주로 신난식(성악 73) 동창이 교가를 선창하자 모두 함께 합창하며 흥겨운 잔치를 마무리하였다. 참석자들은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과 행운 선물을 안고 2020년을 기약하며 작별의 정을 나누었다. (행운 선물 목록은 35페이지 참조)

글·이영희(사학 88·총동창회 홍보부장) /
최지영(사학 89·이화동창 편집위원)



2019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또 하나의 밀알을 뿌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이화 동창들!

2019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2019년 10월 24일(목)부터 10월 27일(일)까지 북미주 지역 35개 지역에서 온 약 200여 명의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Go Green Ewha'라는 기치 아래 미국 시애틀 Hilton Bellevue Hotel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렸다. 제49회 이화국제재단 이사회도 함께 열려 행사장 안팎에서는 두 차례의 만찬과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지회장 간담회,

국제재단 이사회, 특강, 주일 예배, 관광 등 행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시애틀(회장: 신경림(장미 80), 준비위원장: 박정혜(체육 71), 이사장: 이해현(문정 74), 감사: 이정열(조소 11), 부회장: 현미경(국문 71)·이혜령(약학 85), 회계: 박명호(정외 78)·임지숙(교공 78)) 지회를 비롯, 남가주(LA), 뉴욕, 덴버, 디트로이트, 보스턴, 볼티모어, 북가주(샌

지회장 간담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회, 정기총회, 주일예배 등 바쁜 일정을 보낸 이화 동창들



프란시스코), 북텍사스(댈러스), 세인트루이스, 시애틀, 알래스카, 애틀랜타, 오레곤, 워싱턴DC, 클리블랜드, 휴스턴 지회 등에서 온 동창들이 참석했으며, 김순영(약학 62) 총동창회 고문,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및 총동창회 임원과 함께 모교 김혜숙 총장과 모교 관계자, Marc Mullinax 이화국제 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과 화합을 다졌다.

지회장 간담회, 이사회와 정기총회 열려

10월 24일(목) 오후 6시, 총동창회 주관으로 호텔 1층 식당에서 지회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총동창회 김순영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 이명경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과 남가주 이보경(생미 80)·디트로이트 신인옥(컴공 85)·보스턴 김지영(교육 82)·볼티모어 강성려(심리 67)·북가주 광정연(독문 76)·북텍사스 신동진(섬예 85)·세인트루이스 최혜영(생미 86)·시애틀 신경림·애틀랜타 김영례(심리 79)·휴스턴 구희경(사생 86) 지회장 및 토론토 박현주(물리 89) 전 지회장이 참석했다.

제18대 총동창회 임원진 개선 이후 해외 지회장과의 단체 회합은 처음인 만큼 이 자리에서는 참석자 소개와 함께 총회에 대한 기대감이 쏟아졌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올해 베이징에서 아시아지회연합회가 발족했는데 이는 북미주지회연합회가 막언니 역할을 잘해낸 덕”이라며 총동창회 소식을 전했고, 김순영 고문은 “총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다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는데 볼 때마다 새삼 반갑다”며 이화 동창들을 격려했다. 디트로이트 지회장 신인옥 동창은 “지난해 토론토 총회에 첫 참석한 후 이화의 열기를 몸으로 느끼고 돌아왔다”며 “그 여세를 몰아 차차기 총회를 디트로이트에서 열 계획이다”라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오후 8시부터 1층 Kirkland Room에서 약 40여 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현주 이사장의 사회로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회가 열렸다. 고문 추대, 웹 담당 선출, 북미주지회연합회 발전을 위한 토의 등이 이어졌고, 차기 총회 개최지가 논의되었다. 10월 26일(토) 오전 8시 3층 Vancouver Room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각 지회장 사업보고와 함께 전 회의록 낭독, 2018 결산보고, 2019 예산보고가 있었으며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북미주지회연합회 새 고문에 정선주(성약 68·세인트루이스) 동창을 추대하고, 북미주지회연합회 웹을 장계원(문정 76·남가주) 동창이 담당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어 홍경주(약학 62) 국제재단 부이사장의 국제재단 사업보고가 있었고, 차기 총회 개최지 북텍사스에 대한 격려의 박수와 함께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김순영 고문, 남상택 회장, 김혜숙 총장, Mullinax 이사장, 박현주 이사장, 신경림 회장(윗줄 왼쪽부터)

탤런트쇼에서 재능 마음껏 뽐내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원들의 우애와 단합은 이를 간 이어진 두 차례의 만찬에서 꽃을 피웠다. 10월 25일(금) 오후 6시부터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총장님과의 만찬’은 신인선(불어교육 85) 동창의 사회로 1부가 시작되었으며, 김순영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 이명경 부회장, 모교 김혜숙 총장과 최유미 대외협력처장, Marc Mullinax 이화국제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 등 148명이 참석하였다. 신경립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년에 한 번 이화인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모두 신명나게 놀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이번 대회의 캐치프레이즈 ‘Go Green Ewha’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이화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제18대 총동창회가 3월에 첫 걸음을 시작하였음을 알리며 “큰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이화 가족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화합과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지난 1년간 총동창회의 활동 상황을 사진 자료와 함께 보여 주며 총동창회가 항상 이화 동창들과 가까이 있음을 알렸다.

이어 김혜숙 총장은 ‘뿌리 깊은 나무 이화’라는 주제로, 이화 창립의 역사, 교명의 유래, 1대 당장부터 총장 소개, ‘한국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이화의

선배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유미 모교 대외협력처장이 대외협력처 소식을 전한 후 만찬이 시작되었다.

2부는 최선미(무용 90) 동창의 한국창작무용에 이어 탤런트쇼가 <삼바의 여인> 노래에 맞춰 화려한 율동을 보여준 휴스턴 지회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7명의 동창이 북을 들고 <아리아리오>를 율동과 함께 보여 준 애틀랜타 지회, <내가 제일 잘 나가>에 맞춰 화려한 춤 솜씨를 뽐낸 디트로이트 지회, <Stayin' Alive>에 맞춰 화려한 반짝이 의상과 춤 솜씨를 자랑한 뉴욕 지회, 이화의 사위와 함께 화려한 율동을 선 보인 남가주 지회, 은퇴 후 새 도전으로 무술을 배웠다는 최인자(식영 66) 동창의 절도 있는 무술 시범이 돋보인 토론토 지회 등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무대가 펼쳐졌다. 등수에 포함되지 않는 시애틀 지회의 ‘배꽃 상조회’의 <슬기로운 저승생활(감독: 성혜연(국문 02), 출연: 현미경·김성녀(과교 83)) 꽁트는 만찬의 백미였다.

다음날인 10월 26일(토)에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대만찬’은 김유진(성악 95)·김성아(기악 99) 동창의 멋진 축하 연주로 시작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인생의 가장 푸르렀던 시기를 이대에서 지낸 우리가 이번에 시애틀에서 만나 축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스크랜트 여사가 뿌린 씨앗 하나가 큰 결실을 맺어 오늘의 이화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또 하나의 밀알을 뿌리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Marc Mullinax 이화 국제재단 이사장이 모교 김혜숙 총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김혜숙 총장은 모교 소식과 동창들의 활약상을 전하면서 “내년은 모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해인 만큼 앞으로 100년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축하공연을 한 시애틀 지회의 이화 시위 중창단

이어 환경을 생각하는 이번 대화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키노트 스피커로 워싱턴대학의 모니카 모스칼 환경공학대학 부교수가 환경 파괴의 실태와 환경보호의 중요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감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또한 시애틀 지회 이지숙(화학 62) 동창의 딸이자 워싱턴대학의 헨리 엠 잭슨 국제학 스쿨의 학무처장인 캐서린 김 박사가 축사를 전하였다. 2부는 시애틀 지회의 동창들이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시작되었다. 지휘 김성아(종음 98)·피아노 이해연(피아노 71)·첼로 조연자(음악 66)·바이올린 이지영(관현 87) 동창의 합동 공연과 사위 중창단의 깜짝 공연으로 최고의 웃음과 엔터테인먼트를 선사하였고, 텔런트쇼 우승팀 남가주 지회의 앵콜 공연은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양일 모두 2부 사회는 재치 만점의 한나리(체육 92) 동창이 진행하여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혜숙 총장, 박현주 이사장, 신경림 시애틀 지회장, 신동진 북텍사스 지회장이 함께 무대에 올라 손을 맞잡고 하나 된 이화를 보여 주며 감동적인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음해 다시 만납시다!

'에메랄드 시티'라는 이름답게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시애틀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세계를 움직이는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이 기간 동창들은 10월 25일(금) 시애틀 시내 관광, 10월 26일(토) 마운틴 레이니어 국립공원 등을 돌아보며 시애틀의 가을을 마음껏 즐겼고, 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동창들은 호텔에 마련된 요가, 댄스, 건강 세미나를 즐기며 하루를 지냈다.

한편 10월 27일(일) 오전 8시 30분부터 현미경 동창의 인도로 주일예배가 열렸다. 유영희(사학 74) 동창의 기도와 박정혜 동창 외 2인의 <내 영혼 평안해> 특송이 마음을 울렸다. 뉴욕 지회장 강혜경(영문 83) 목사는 <뭣이 중헌디>라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말씀을 전했다.

이화 동창들은 오늘의 만남이 먼훗날 멋진 추억이 되어 삶을 수놓을 것이라 믿으며, 다음해 멜러스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텔런트쇼에서 재능을 뽐낸 휴스턴, 애들랜더, 디트로이트, 뉴욕, 남가주, 토론토 지회 회원들(위부터)

이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의 첫걸음 내딛어

아시아지회연합회
발족식이 2019년 9월
23일(월)부터 25일(수)
까지 사흘간 중국 베이
징에서 열렸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아시아 지
역에서 이화 동창들의
교류 활성화 및 모교와

의 네트워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
며, 2018년 11월 모교에서 주최한 아시아 지역 동
창 초청 모임으로 구체화되어 2019년 9월 베이징
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9월 23일(월) 오후 5시에는 베이징 백가대원(白
家大院)에서 ‘아시아지회연합회 발족식’이 열렸
다. 백가대원은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아들 대
선(大善)의 저택을 개조해 청나라 궁중요리를 선
보이는 중국 전통 정원식 레스토랑이다. 김혜숙
총장을 비롯한 모교 참석자 4명,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과 박순원(사회 77) 총동창회 지
역부장과 함께 베이징(지회장: 강미경·생미 88),
선전(심찬), 홍콩(지회장: 최명성·교공 76), 싱가포
르(지회장: 박진경·교공 91) 등 아시아 지역 동창
총 40명의 이화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화의 정
신을 나누고, 향후 아시아지회연합회 운영과 관련
한 건설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김혜숙 총장은 인사말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가서 글로벌 이화 커뮤니티로 성장하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강미
경 베이징 지회장은 “앞
으로 후배들이 글로벌
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는 이화-아
시아 네트워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베이
징을 찾아준 여러 동창

들에게도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총동창회 대표로
참석한 이명경 총동창회 부회장도 아시아지회연
합회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베이징
에 거주하는 이화 출신 중국인 동창들도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9월 24일(화) 오전에는 베이징의 연회장 ‘순평’에
서 ‘아시아지회연합회 발족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
다. 김혜숙 총장의 기조연설 및 아시아지회연합회
발전 방향에 대한 각 지회 동창들의 자유로운 토
의가 진행되었으며, 간담회에서 차기 아시아지회
연합회장으로 박진경 싱가포르 지회장을 선출하
고 2년에 한 번씩 연합 모임을 갖기로 뜻을 모았
다. 제2회 아시아지회연합회 모임은 2021년 싱가
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24일(화) 오후 고북수진 관광이 진행되었으며,
25일(수)에는 주중국한국대사관저 오찬을 끝으로
첫 아시아지회연합회 모임이 마무리되었다.

글·김민주(커미부 05)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몸으로 전달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화발레앙상블(Ehwa Ballet Ensemble)의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이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4시와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있었다. 이화발레앙상블은 모교 무용과 발레전공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1992년 창단되어 모교 무용과 신은경 교수가 예술감독 및 안무를 맡고 있으며, 한국 발레의 발전과 사회적 공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작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온전히 치유된 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애절한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독무가 돋보였다. 헨델의 메시아 45번 <내 주는 살아계시고>에 맞춘 장면은 부활의 소망을 청중들에게 메시지로 던져 주었다. 웅장한 헨델의 명곡 <메시아>를 토대로 예수의 탄생과 부활까지 장면마다 다양한 무대 장치가 돌아가고, 음향과 조명이 발레리나의 역동적인 군무와 우아한 독무를 잘 표현했다. 예수, 베드로, 구레네 시몬,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유다, 사탄 등 각각의 역할도 빛났다. 지난 15년 동안 참여한 정예 부대 같은 발레리나가 숙련된 내공으로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깨닫고 깊은 신앙 고백과 같은 무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이다.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제18회 기독교 문화대상(2004) 및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2014)을 수상하기도 했다.

많은 관객들이 후기를 보내 왔다. ‘전문성 그리고 이화의 열정에 감동!’ ‘숙련된 발레리나의 내공을 보여주는 공연이다’ ‘오래 숙성된 포도주의 맛’ ‘극의 스토리부터 극의 아름다움, 연기하는 배우자들의 의상까지 굉장히 예쁘게 잘 준비되어 있다’ ‘성경에서 읽은 것이 기억나 행복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최후의 만찬, 사탄의 공격 등 인상적인 장면이 많아서 하나만 꼽을 수는 없네요’ 등 등이었다. 특히 무슬림, 탈북자 그리고 이화에 온 유학생들이 공연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정치와 종교와 언어 장벽을 넘어 발레를 통한 선교의 장이 열려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공연의 수익금은 전액 135개국에 파송된 이화의 선교사들에게 전달된다. 공연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선교부, 이화발레앙상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가 주관하며 국동방송, 국민일보, CGNTV가 후원, 더블유씨엔코리아가 기획했다.

글·이미경(서양 86)/사진·이명숙(의직 75)

“어려운 발걸음마다 이화의 손 잡아 주소서”

‘이화가족 성탄예배’는 해마다 12월 첫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2019년은 24번째로 12월 5일(목) 오후 3시. 장소는 대강당이다. 이화가족 성탄예배는 총동창회와 교목실이 함께 주관하며 이화의 재학생, 교수, 직원과 은퇴한 직원 및 동창들이 참여한다. 이화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성탄을 기다리고 축복하는 자리이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말씀과 찬양을 듣는 것도 기쁘지만 특별 연주와 합동 무대 또한 볼거리, 들을 거리가 가득해서 한 편의 공연을 즐기고 온 충만한 기분이 든다. 2019년에는 어떤 은혜로운 시간이 펼쳐질까 자못 기대가 크다.

예배 시작 한 시간 전, 공연 리허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특주와 찬양팀의 공연 리허설은 갑자기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진 바깥 날씨가 무색하게 뜨겁고 활기찼다. 동창과 재학생 연합합창단의 합송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무대 위에는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등 성탄을 상징하는 색으로 옷을 차려입은 동창과 재학생들이 자리 잡고 있다. 동창과 재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음을 조율하고 입을 맞춰 부르는 현금송 〈이화 할렐루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이토록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 ‘이화’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일 것이다.

3시 정각, 장윤재 교목실장의 인도로 성탄예배가

시작되었다. 대강당 좌석이 빈틈없이 가득 찼다. 김희성 교수의 전주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도자가 예배의 부름을 시작하고 곧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를 다함께 불렀다. 그리고 이어진 ‘이화가 드리는 기도’의 순서. 인도자 5명이 올라와 ‘우리의 영혼 위에 함박눈처럼 포근한 사랑으로 다가오시길’ ‘이화가 더욱더 이 땅의 여성들을 돌보고 사랑하게 되기를’ ‘국내외에서 이화의 정신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창들과 함께하시옵기를’ ‘이화동산에서 연구하며 가르치는 교수님들, 기도하며 봉사하는 직원 선생님들, 꿈을 향해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나기를’ 각각 기도하였다. 한 구절 한 구절 소망과 믿음이 담긴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또 하늘 끝까지 올라가길 바라는 간절함이 대강당 구석 까지 울린다.

이어 한국음악과 안현정 교수와 박애란(한음 12)·진세영(한음 17) 동창 연주팀이 〈판소리를 위한 ‘예수탄생기’〉를 특주로 들려주었고, 남상택 총

동창회장이 누가복음 1장 26-31절의 성경 봉독을 하였다. 뒤이어 음대합창단(지휘 : 음대 박신화 교수)과 음대 신지화 교수의 노래로 〈오 거룩한 밤〉 찬양이 울려 퍼졌다.



이어 성탄예배를 인도한 장윤재 교목실장의 ‘Advent’라는 제목의 말씀이 이어졌다. 장 교목실장은 “성탄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펼쳐진 하나님의 모험”이라며, “아기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Adventure”이고 “하나님의 모험은 엘리사벳, 마리아로 대변되는 두 여인의 연대와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동창과 재학생 연합합창단(지휘 : 음대 김동근 교수)이 부르는 현금 송 〈이화 할렐루야〉가 장내에 울려 퍼졌을 때 ‘이화’라는 이름으로 하나 됨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 가득했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이화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의 어떤 것을 본받고 시작했는지 뒤 돌아보는 우리가 되자”며 현금 기도를 올렸다. 김혜숙 총장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자리는 왕좌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이화의 존재 또한 아기 예수의 시작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연은 다 함께 즐기는 자리였다. 박신화 교수가 지휘하는 음대합창단은 〈징글벨〉을 유쾌하고 역동적으로 들려주어서 성탄의 기쁨에 저절로 어깨가 들썩일 지경이었고, 김지은(작곡 04) 동창이 지도한 ‘작쏘벨(작곡과가 쏘아올린 핸드벨)’ 팀

은 핸드벨의 영롱한 소리로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를 연주하여 마음에 훈훈한 온기를 돌게 하였다. 이어 이화유치원 어린이 산타 24명의 〈성탄 캐럴 부르기〉 순서에 이르자 모두 박수를 치며 어린이들의 깜찍한 공연에 박자를 맞추어 주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상 전 총장은 “동창과 재학생 연합 찬양이 특히 좋았다”고 성탄예배의 감동을 전했다. ‘어려운 발걸음마다 이화를 지켜 주시고/이화의 손 잡아 주셨던 그 사랑/우리와 함께하소서/우리를 위로하소서/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소서’라는 〈이화 할렐루야〉 노랫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선후배가 나이와 직위 관계없이 한데 어우러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모교 이화에 찾아온 성탄의 참뜻일 것이다. 성탄예배가 끝나고 ECC 앞 광장에 작은 소형 트리 점등식이 이어지며 성탄의 기쁨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피어오르기를 기도했다. 총동창회에서는 따끈한 백설기 떡을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였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사진·이대 홍보실 제공





올해의 이화인 ‘이올’ 연합모임

이화 정신 되새기며 사회 봉사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총동창회는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5시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1기(1959년 졸업자)부터 29기(1989년 졸업자) 올해의 이화인 180여 명과 함께 ‘올해의 이화인(가제 이올)’ 첫 연합모임을 가졌다.

이명경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행사에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기 올해의 이화인(1991년 추대) 선배님 세 분을 비롯해 멀리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이올 연합모임은 올해의 이화인들이 선후배 간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결속을 다지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동창회 자체 행사로 추진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이뜻깊은 행사가 오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의미 있고 보람된 활동을 통해서 유대 관계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기 올해의 이화인 최정숙(국문 59) 동창은 “김

활란 선생님께 기독교 정신을 배우며 이화인이 되었다”면서 “이 모임의 뜻을 잘 살려 선후배 간에 유대와 결속을 다져 모교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하였다. 김순영 고문은 축사를 통해 “올해의 이화인들은 가정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이화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참된 의미의 이화인들이다”라고 한 뒤, “사랑·희생·봉사·정의·섬김·나눔의 이화 정신을 되새기며 모교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공헌하는 이올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순영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 최정숙 동창(왼쪽부터)

올해의 이화인들의 풍성한 축하 공연

올해의 이화인으로 구성된 연주자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신난식(성악 73) 단장이 이끄는 '아르모니아'는 '올해의 이화인'으로만 구성된 합창단으로 이수연(성악 92) 지휘, 장진영(피아노 92) 반주로 20여 명의 단원이 연한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서 <별>과 <예수님처럼> 두 곡을 들려주었다. 다음 연주로는 두 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곡 <F.Doppler Andante for two flutes and piano Opus 25>으로, 최연수(관현 87) 동창과 곽연희(관현 89) 동창이 박서영(피아노 89) 동창과 함께 내는 우아한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 순서는 바이올린 독주. 총동창회 재정부장이기도 한 류예행(관현 88) 동창이 김진우(피아노 88) 동창의 반주로 <Tango for Violin>을 연주하여 이화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선후배 간 유대를 통해 이화 정신과 가치 나눠야

2부에서는 역대 올해의 이화인 행사 영상과 사업계획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미경 총동창회 총무가 대형 스크린으로 1991년 1기부터의 영상 자료를 소개하며 대강당에서의 예식과 한복 색상의 변화 등 행사의 변천사를 보여주자, 참석자들은 전통과 변화 속에서도 올곧게 흐르는 이화 사랑 DNA를 확인하고, 선발된 취지를 새롭게 떠올리면서 섬김과 나눔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김곡미(생미 87) 총동창회 사업부장이 사업계획 및 향후 일정을 설명하였다. 우선 모임의 심벌을 '이올'로 정한 데 대해, 이는 "이화여자대학교 올해의 이화인의 약자로서(EALL), 재학생들에게도 이화의 정신과 가치를 나누어 주자는



올해의 이화인들의 축하 공연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김곡미 부장은 "각 기별로 모였을 때는 힘이 약하지만 연합하면 더 큰 힘을 모아 큰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좋은 일을 하면서 이화의 정신을 확산 시켜 나가려는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연합 전시나 연합 연주회 등의 단과별 행사 추진, 아르모니아 합창단과 같은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춘·추계 워크숍 등 기수 통합 모임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이화의 중심에 올해의 이화인이 있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난식 동창은 "봉사와 사회 공헌을 한다고 하니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이화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각 과에서 한 명씩 뽑힌 이화인이 모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재능 기부의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교가를 부르고 기념 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 사랑으로 충만한 이화인이 되기를 빌며

2019년 11월 5일(화) 오후 12시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가 이화학당 행정동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후원이사들을 위해 마련한 감사의 자리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이경숙 총동창회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 이명경·조미숙 총동창회 부회장 및 임원진, 총동창회 후원이사 등 58명이 참석했다.

한미경 총무의 사회로 시작한 행사는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에 이어 장명수 이사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장명수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오랜만에 후원이사님들을 이화학당에 모시게 되었다”며, “교육처럼 위대한 일이 세상에 없는데, 이 자리를 통해 모교 이화에 대한 사랑을 다시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아름다운 계절에 이화학당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다”며,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장명수 이사장과 참석한 후원이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이어 북미주지회연합

회 총회와 아시아지회연합회 발족식 참석 등 제18대 총동창회의 활동보고를 한 뒤 “총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후원이사님들께서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이날 참석자 중 최고령자인 문희(약학 59) 동창은 ‘이화인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후원이사들은 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 기부를 통해 이화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명경 부회장의 “이 자리가 가을의 열매로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비는 식사 기도에 이어 참석자들은 이화학당에서 준비한 오찬을 즐긴 뒤 행정동 앞뜰에 모여 삼삼오오 사진을 찍으며 깊어가는 모교의 가을을 즐겼다. 이날 참석한 후원이사들에게 이화학당에서는 이화출판문화원이 출간한 책『박에스더』(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의 생애를 기록한 책)를, 총동창회에서는 고급 실크 스카프를 증정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장 상(수학 62) 동창 **세계한인교류협력대상 및 한반도통일공현대상 수상**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 회장 장상 동창이 2019년 10월 4일(금)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및 세계한인교류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세계한인교류협력대상(세계한인교류 협력기구·3.1운동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재단 주관)'을 수상하였다. 이어 12월 13일(금) 국회의사당 귀빈실에서 열린 '한반도통일공현대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대상을 받았다. 한반도통일공현대상은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우리민족교류협회가 주관한다.



홍양자(체육 67) 동창 **대한민국체육상 대통령상 수상**

모교 명예교수이며 일본 아사히카와 객원교수 홍양자 동창이 2019년 10월 15일(화)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7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체육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홍동창은 특수체육 개척자로서 미국에서 특수체육 교육전문가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 대학에 특수체육을 도입하여 학과목으로 최초로 개설하는 등 특수체육 학문 정립과 발전에 공헌하였다.



장예순(교육 68) 동창 **대한적십자사 신임 부회장 선임**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장예순 동창이 2019년 11월 14일(목) 서울 종구 적십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대한적십자사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장동창은 훌트아동복지회 후원회 부회장, 이싹희 연합회 회장,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이싹희 발전협력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고등학교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위성숙(약학 73) 동창 **한국여약사회 제11대 회장 취임**

2019년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28회 한국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위성숙 동창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한국여약사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임기는 3년이다.



문미란(법학 80) 동창 **서울시 신임 정무부시장 임명**

문미란 동창이 2019년 12월 16일(월) 서울시 신임 정무부시장(지방정무직·차관급)에 공식 임명되었다. 문동창은 한국여성재단, 참여성노동복지터 이사,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등 여성·가족 분야 사회단체에서 다년간 활동했으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 설원복지재단 상임이사 사지숙 동창

72년 외길 ‘왕 원장님’의 사랑의 나눔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나눔과 섬김, 봉사를 통한 이화 정신의 실천자로서 밀알이 되기를 마다 하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이화인에게 총동창회가 마음을 담아 드리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201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설원복지재단(안양의 집,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상임이사 사지숙(교육 55) 동창이다. 사지숙 동창의 아버지 사태현 장로는 1947년, 안양 밤나무 동산에 터를 잡아 막사를 짓고 전쟁고아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사지숙 동창이 중학생 때이다. 부모님을 도와 봉사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안양의 집과 사지숙 동창의 연(緣)은 평생을 이어갔다. 자원봉사자로, 재단의 근명증·상업고 교사와 교장으로, 안양의 집 원장으로, 그리고 설원복지재단 상임이사로 모두가 ‘왕 원장님’으로 부르며 따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양의 집 역사는 사지숙 동창의 삶의 기록이 되었다.

5,400명 아동들의 마음의 쉼터이자 고향

그동안 5,400명이 넘는 아동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처음에는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가 대부분이었다. 1985년 정부 지원이 있던 전에는 설립자가 사재를 털고, 직접 농사도 짓고, 미국 기독교아동기금 CCF(Christian Children's Fund)의 후원으로 버텼다. 시간이 흐르며 안양의 집도 사동창 등 설립자 가족의 혼신과 사랑, 그리

고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과 기도로 아이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안양의 집 아동들의 사정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부모가 있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어 오게 된 경우가 더 많다. 이전과 달리 아이들은 이곳에 있으면서도 정기적으로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부모에게 휴대전화나 학원비 등을 지원받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의 사정이 나아질 경우 원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안양의 집에는 앵두집, 난초집, 목련집, 백일홍집 등 10개의 생활관이 있어 아이들이 성·연령 대별로 나누어 생활하고 있다. 생활관별로 2~4명의 지도 교사가 있어 아이들의 생활을 돌보고 있다.

72년간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사동창의 큰 기쁨이다. 그들은 ‘238형제회’를 만들어 명절에 고향을 찾듯이 매년 찾아온다. 이곳 주소가 238번지기 때문이란다. 올 때마다 트럭으로, 자동차로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온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라면 박스이다. 요즘 안양의 집에서는 유기농 김치 등 좋은 것만 먹이고 아이들 건강에 해롭다고 라면을 못 먹게 하지만, 예전엔 라면이 먹고 싶은 음식이었던 시절도 있었기에 라면은 아픈 추억을 다독여 주

는 위로의 선물이기도 하다.

사지숙 동창은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 진학을 권장한다. 덕분에 그동안 72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후배들을 찾아와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성적이 좋지 않아 장학금을 받지 못한 아이에게는 법인이나 사 동창이 개인적으로 학비를 내준 것도 부지기수이다. 대학원까지 진학한 친구가 있었다. 그 학교에서는 훌륭한 학생을 보내 준 안양의 집에 감사장을 보내 왔다. 그 학생은 “살면서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이 누구냐”는 질문에 “왕 원장님”이라 답했다고 한다.

벽면에 가득한 사진 속 사 동창은 신랑 즉 파란 한복을 입기도 하고 신부 즉 분홍 한복을 입기도 했다. 때로는 신랑의 엄마로, 때로는 신부의 엄마로, 그리고 주례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아 왔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다고 연락이 오면 왕 원장님은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낸다.

대학 진학 권장하고 예술 교육 시켜

사지숙 동창은 모교 재학 시절 문과대 종교부장으로 활동하고 사범대 연극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다. 안양의 집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공연하고, 이대 무용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와서 발레를 지도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 동창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은 요벨 관악단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초 크리스마스 연주 봉사를 위해 보육원을 찾은 서울교대 음악교육과 장기범 교수에게 사지숙 동창은 관악단 설립을 부탁했다. 장 교수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매주 왕복 두 시간의 거리를 단숨에 달려온 만큼 열의를 갖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

도했다. 장 교수를 비롯한 후원자들은 레슨비도 받지 않고 음악을 가르쳤다. 뜻있는 기업의 후원으로 악기를 마련하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단원들로 구성된 관악단의 틀을 갖추어 나갔다. 아이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하고, 곳곳에서 초청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지숙 동창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아이들은 트럼펫 봉사를 하고 있는 장기범 교수를 보며 저도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 예능을 배운 아이들은 마음 밭이 다르다. 겪은 것이 많아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 노래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면 어느 날 뭔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사지숙 동창은 믿는다.

아이들 하나하나 존중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사 동창은 이곳의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그것은 설립자인 사태현 장로도 마찬가지였다. 그 옛날 모두가 가난하던 초창기, 보육원 아동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학교에 찾아가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러다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사립학교를 세웠다. 근명 중·상업고등학교이다. 사 동창은 1955년부터 1972년 까지 이 학교의 교사와 교장으로 헌신했다.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 동창과 안양의 집 선생님들의 마음은 여느 학부모와 다를 바 없다. 또 그에 못지 않게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한다. 예전에 한 여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그 반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보육원 아이니 같이 놀지 말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이정혜 원장(사지숙 동창의 큰딸)은 바로 교장에게 편지를 쓰고 거세게 항의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학교에서 자



퇴소생의 결혼식마다 신부 어머니, 신랑 어머니가 되어 축하해 주었다. 특전부사관으로 임용된 퇴소생의 경례를 받고 있는 사지숙 동창(왼쪽부터)

세가 별로 좋지 않았다. 엎드려 자는 아이에게 똑 바로 앉으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자 선생님은 출석부로 때리며 “넌 보육원에서 살고 있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사지숙 동창은 “보육원에서 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 또한 편견이고 그릇된 인식이지요”라고 말한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양의 집에서는 새 학기에 각 초·중·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이곳의 생활을 설명하고, 각 숙사를 방문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가정방문 후에 선생님은 선입견 없이 아이들을 대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특별해지고, 아이들 또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아이는 사랑과 칭찬으로 자란다

사 동창의 우선순위는 아이들이다. 조금이라도 쓸 돈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푼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잘한 일을 한 아이에게는 늘 용돈을 준다. “때로는 준 것을 잊어버리고 또 주시기도 해요.” 둘째 딸 이연희 요양원 원장이 거둔다. 아이들은 왕 원장님께 카드나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첫 월급을 타서 생신 선물을 들고 오기도 한다. 한 아이는 ‘여기 와서 살게 된 것은

삶의 종합 선물이다. 여기 와서 산 것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주에 있는 시설이 폐쇄되며 이곳으로 전원된 친구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대학 진학은 생각도 못했다. 똑똑했던 아이는 이곳에 와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다. 축구를 전공하여 위덕대 코치로 내정되는가 하면 특전사 부사관이 된 친구도 있다. 그는 임관식 때 눈물을 흘리며 이곳의 가족들이 그립다고 했다. 아이들은 사랑을 주셨기에 잘된 것이라고 한단다. 사 동창은 오늘도 칭찬해 줄 아이가 없나, 칭찬을 놓친 아이는 없는지 늘 살핀다.

“우리에게는 재능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후원자들도 많고, 드러내지 않는 많은 후원자들도 있습니다.” 키움증권 설립자인 후원자는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안양의 집을 구석구석 살피며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김장 때마다 직접 기른 배추를 기증하고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자 이제는 소금에 절인 유기농 배추를 기증한다고 한다. 따로 양념값도 함께 보낸다. 물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유기농 재료이다. 담당직원을 두고 물휴지, 빗자루, 공기청정기, 필요 물품을 예측하여 미리 알아서 보내기도 한다. 사 동창과 이 원장은 이들 모두에게 전하는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안양의 집은 보육원 외에 설립 당시부터 빙곤 노인을 무료로 돌보아 왔다. 노인장 기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전인 2004년 요양원을



사회에 나간 원생들은 238형제회를 만들어 안양의 집을 찾고 있다

설립.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무료 노인 요양시설이었다. 요양원은 이용료 본인 부담자도 입소가 가능하지만 빈곤층에 우선권이 있다. 현재 대기자만 해도 150명이 넘는다.

이화를 위해 기부하게 되어 기뻐

사 동창의 가족은 명실상부한 이화 가족이다. 사 동창의 큰딸과 둘째 딸 모두 이화 동창이다. 딸들의 시어머니들과 시누이, 그리고 손녀까지 이화 가족만 모두 10명이다. 모교 철학과를 졸업한 큰딸(이정혜 전 원장)은 안양의 집 원장으로 8년 간 재직하다 휴직 중이다. 모교 장식미술과 출신의 둘째 딸 이연희 요양원 원장은 사 동창과 함께 설원재단을 이끌어가고 있다.

사 동창은 이번 수상 상금 1,000만 원을 모교 발전에 써달라며 총동창회에 쾌척했다. 사 동창은 단 한 평의 부동산, 집 한 채가 없다. 사유재산도 없다. 돈이 생기면 법인에 후원하거나, 아이들 등록금이나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 언제나 사 동창에게는 안양의 집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교에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상금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기회에 이화에 기부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강원도 산불 때 아이들에게

성금을 보내자 하니 중학생 아이는 한 달 용돈을 모두 털어서 냈어요. 선생님들이 극구 말릴 정도였지요”라며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얼마 전 삼성산에 불이 나서 산 아래 요양원에도 불이 번질까 위험했어요. 요양원에 100여 분의 어르신이 계셨어요. 광복절 휴일로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한 후였지요. 직원들이 부랴부랴 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 구조 요청을 들은 보육원 남자 원생들이 달려와 어르신들을 1층으로 모두 대피시키고, 몇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안심시키며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함께 있었지요. 정말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사랑을 주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사 동창은 전한다.

함께 인터뷰를 했던 이연희 원장은 어머니 사지숙 동창에 대한 고백을 진솔하게 털어 놓았다.

“항상 작은 일로도 칭찬하시며, 너는 이것을 잘 하는구나 하며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키우고 계십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 지적하여 지도해 주시고 잘한 일은 격려해 주시지요. 완벽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엄마가 정답입니다.”

90세를 바라보는 사 동창, 미수임에도 신체나이는 61세라고 한다. 다리가 좀 불편하여 훨체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지런히 움직이며 안양의 집 식구들을 살뜰히 챙긴다. 수십년 전 입었던 옷을 아직도 입을 정도로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부지런한 사 동창은 영어, 일본어에도 능통하고 승부욕도 남다른 멋진 이화 선배이다.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사 동창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아름다운 이화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비즈 / (주)에프앤씨 오브엠의 부사장 겸 디자인연구소 소장 이소연 동창

남다른 구두 사랑으로 ‘편한 구두’의 선두주자가 되다

지난 가을 모교 총동창회 주최 대바자회의 인기 스타는 단연 ‘오브엠’의 구두였다. 플랫슈즈, 하이힐, 샌들, 슬립온, 앵클부츠 등 다양한 종류의 구두를 총동창회에 무상으로 제공해 510쪽 완판 기록을 세운 오브엠은 동창들 사이에서 ‘통 큰 기부’의 아이콘이 되었다.

‘오브엠(Of'em, One Of Them)’은 (주)에프앤씨의 자체 브랜드로서 브랜드 네임에는 ‘그들과는 차별화된 다름을 추구하는 Only One’이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수제화의 메카 성수동에 처음 터를 잡은 오브엠은 24년째 ‘편하면서도 화려하고, 실용적이면서도 유니크한’ 구두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과 AK플라자, 갤러리아 백화점 등 4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롯데홈쇼핑, 홈앤햄프 등 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에서 도 인기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 연간 매출 330억 원을 달성하고 있다.

성수동 (주)에프앤씨 사무실에서 오브엠의 부사장 겸 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소연(성악

87) 동창을 만났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신골’이라는 불리는 라스트(발 모양을 본떠 만든 플라스틱 모형)와 색색의 가죽들,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의 구두 샘플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성악을 전공한 구두 디자이너

성악을 전공한 이 동창이 구두를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의외의 조합이라는 생각

에 어떻게 된 사연인지부터 물었다.

“저는 구두를 유난히 좋아했어요. 학교 앞 수제화 가게들이 즐비한 구두 골목을 지나다니며 예쁜 구두를 보면 하나둘 사 모으는 게 취미였죠. 그러다 보니 구두 가게 판매원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구두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었어요.” 이 동창이 구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머리 무늬가 새겨진 ‘조다쉬’ 청바지에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학생이 ‘이대생’의 상징이던 시절이었다. 구두에 남다른 애정이 있던 이 동창 역시 그런 이대생 중 하나였다. 계다가 서울예고를 나온 이 동창 주위에는 당연히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친구들이 많았다. 알게 모르게 화려하고 세련된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길러졌고 그런 성향은 오브엠의 구두 디자인에도 반영되었다.

사실 (주)에프앤씨의 전신은 ‘아성상사’라는 무역 회사다. 삼성전자 해외영업팀 출신의 남편이 자기 사업의 꿈을 품고 1993년 11월 아성상사를 창립했다. 당시에는 삼성전자 금전등록기를 그리스와 스

페인에 수출하고 이탈리아 유명브랜드 선글라스, 넥타이, 스카프 등 액세서리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것이 주 사업 아이템이었다. 예술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는 성악을 공부한 이 동창에게는 친숙한 곳이어서 판매할 품목을 매입할 때 자주 동행했다. “희한하게도 제가 구매해 오는 품목마다 완판을 기록했어요. 물건을 납품한 갤러리아백화점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학창 시절 길러진 남다른 안목과 감각이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거기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드물던 시절, 남편과 함께한 미국 유학 생활의 경험의 해외영업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그 후 1997년 1월 성수동에 (주)에프앤씨 법인을 설립하고 ‘오브엠’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갖게 된다. 1997년 2월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에 오브엠 1호점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AK플라자 등에서 잇달아 매장을 열었다. 오픈 당시 고객들의 주문이 물밀 듯이 들어와 높은 매출 성과를 올렸다.

수입 구두가 국내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는 사이즈 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4가지 사이즈(S~XL)면 충분한 의류와 달리, 신발은 최소 6가지(225~250) 사이즈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재고 관리가 매출과 직결된다. 그런 문제점을 알아차린 오브엠은 잡화와 액세서리류 수입 외에도 성수동의 자체 제화공장에서 주문과 동시에 제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발 빠르게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위기를 겪으며 더 단단해진 오브엠

1997년 11월 IMF 외환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오브엠은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롯데백화점 명동점에 이어 부산에 3호점을 내면서 승승장구를 이어갔다. 그러다가 IMF 위기와 함께 모든 경제 상황

이 악화되면서 국내 수제화 분야도 고전하게 된다. “회사를 설립한 당해에 닥친 위기라 더 힘겨웠어요. 주문한 물건이 바로 실려 오는 중에 주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환율이 오르는 탓에 물건 값은 치를 수 없는 지경이었으니까요. 또 그렇게 비싸게 손해를 보고 들여온 제품들은 재고로 쌓여 있어도 너무 아까워서 처분하지 못한 채 한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 후 다양한 행사를 소화를 했지만, 당시에는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그때 IMF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난관들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후 2007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로 또 한 차례 어려움을 겪으며 제화업계는 한정된 시장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위기 때마다 오브엠은 원부자재를 직접 현지에서 직수입하여 제조원가를 절감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이어갔다.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오브엠 임직원들의 굳은 의지와 브랜드 알리기 전략이라는 홍보 마케팅이 성과를 거두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과 홈쇼핑 방송 등으로 판로를 개척한 결과,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오브엠의 다양한 디자인의 구두 샘플을 소개하는 이소연 동창

이 동창은 당시를 회상하며 “한편으로는 음악을 하며 몸에 밴 인내심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 그리고 합창단을 통해 길러진 협업하는 자세가 당시의 난관을 극복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경험이 인내심을 낳았고, 될 때 까지 거듭 노래 연습을 하던 노력하는 자세가 성실함을 길러준 셈이다.

1980년대부터 존재했던 고세제화나 세라제화에 비해 1997년에야 매장을 오픈한 오브엠은 수제 살롱화로서는 늦깎이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수제화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년도 뛰어넘었다”고 말하곤 한다. 사실 제화업계는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이다. 대개 기술자 출신이나 판매사원 출신들이 회사를 차리고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교류하거나 원자재를 거래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오브엠처럼 전혀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에게는 원자재 가격을 비싸게 불렸다. 제화업계에 발을 들여놓기가 그만큼 어려웠다.

하지만 이 동창은 무슨 자신감에서였는지 “내가 제화업계의 구태와 구습을 바꾸겠다”고 장담했다. 원자재 구입이든 영업이든 투명하게 하고자 노력했다. 멋쩍하게 벌어서 이익을 얻고 그것으로 다시 제품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오브엠이 추구하는 가치다. 돈만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했다면 회사는 벌써 문을 닫았을지 모른다.

‘편안하고 예쁜 구두’의 대명사

제화업계는 그간 부실 운영했던 국내 신발 브랜드가 정리되면서 2010년 이후 수제화(살롱화)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한다. 그 무렵 오브엠에서도 고객의 요구에 맞는 트렌드 디자인의 편안한 구두를 개발하기 위해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한다.

제화업계에서 30여 년의 경력을 쌓은 구두 제조 장인과 다년간 구두만 디자인한 인재를 전담 연구원으로 갖추고 오산대 신발산업학과와 산학협력을 맺어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 개발 및 기능성 소재 개발에 힘을 쏟았다. 구두를 제작할 때는 라스트에 선을 그리는 패턴작업부터 시작한다. 신발은 각 사이즈의 간격이 5mm로, 1~2mm만 차이가 나도 발이 불편해 신지 못한다. 그래서 신발 디자인은 ‘밀리미터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편안하고 예쁜 신발’을 추구한 결과, 오브엠의 신발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편하다는 ‘침대 샌들’, ‘구름 샌들’로 유명해졌다. 이 동창은 인공지능(AI)에게 오브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대번에 “편안한 구두”라고 답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오브엠이 ‘편안한 신발’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방증이다. 이 동창은 “오브엠 제품이 사람들에게 ‘클럽에서 몇 시간을 놀아도 편안한 구두’로 알려지길 바랐고 남들이 안 하는 라텍스 쿠션을 개발하는 등 처음부터 편한 신발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목표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라며 나름 자부심을 드러낸다.

구두를 비롯한 패션 산업은 개발에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분야다. 오브엠디자인연구소 역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구하는 이 동창의 생각과 맥락을 같이한다. “저의 전공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어요. 당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코오롱패션연구원에 다니며 따로 디자인을 배웠고 기회만 되면 유럽에서 열리는 3주 코스 디자인 아카데미에도 자주 발을 들여놨어요. 디자인의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매달렸던 것이 지금은 큰 자산이 되었어요.”

디자이너들은 대체로 수명이 짧다.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하는데 윗자리로 올라갈수록 디자인 외에 맡은 일이 많아지고 책임도 무거워지다 보니 디자인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동창의 딸 권나현(서양 12) 동창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만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DNA의 힘은 위대한 법. 어머니 이 동창의 남다른 끼를 물려받은 권 동창도 현재 모 의류회사에서 MD로 일하고 있다.

처음부터 남편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간 이 동창은 세월이 지날수록 남편에게 더 진한 동료애를 느낀다고 말한다. “초기에는 의견 충돌도 많았지만, 차츰 남편은 영업, 저는 디자인 개발 및 재고관리로 각자의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면서 맡은 위치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어요. 부부가 함께 회사를 일구고 꾸려가면서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자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 실감해요.”

이웃과 함께하는 오브엠이 되고자

이제 사회 활동에도 참여할 시기라는 생각에 이 동창은 현재 여성단체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모교 출신 경영인들의 모임인 ‘이화 비즈’를 비롯해 ‘여성이 여성을 돋자’라는 취지로 결성된 국제 여성봉사단체 ‘소롭티미스트(Soroptimist)’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소외된 여성과 소녀를 돋기 위한 바자회 ‘소롭티미스트 마켓’에는 7년째 참여하고 있다.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눈길을 돌린다면 그들에게 금전적인 도움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는 자신감도 줄 수 있다는 깨달음도 얻었죠. 그런 맥락에서 오



오브엠이 후원한 '서울국제여성협회(SWIA)와 주한외교커뮤니티가 함께하는 자선비자회'(11월 18일, 위)와 모교 총동창회 주최 대바자회(9월 26일, 아래) 장면

브엠도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과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 동창은 후배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을 남겼다. “일을 추진하고 그것을 이룬 뒤에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에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가봐야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도전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힘들다는 생각에 미리 포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커다란 결과로 돌아오거든요. 제가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떤 경험이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은 없다는 점이에요.” 어려운 시절 난관을 겪어 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과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진리를 새삼 되새겨 보게 하는 말이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최상의 진료뿐 아니라 힐링과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곳

이대서울병원(이하 병원)은 2019년 5월 23일(목) '환자 중심의 첨단 스마트 병원'을 내세우며 정식 개원했다. 지난 2015년 1월 서울 강서구 마곡 지구에 부지를 마련하고 이화 동창들의 정성스런 기부와 관심 속에 착공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병원은 2019년 9월 '2019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11월 '2019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까지 수상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상의 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내 최초 기준 병실 3인실, 중환자실 1인실이라는 새로운 병실구조와 스마트 수술실, 임상통합상황실,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진료 시스템을 통해 국내 의료 환경의 질을 한층 높인 것이 보건의료대상의 수상 이유였다. 또한 지하 6층, 지상 10층에 1,014병상 규모의 웅장한 건물임에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공들인 외관 디자인과 환자와 병원 방문객을 배려한 세심한 내부 설계가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에 큰 역할을 했다.

환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고려한 환자 중심 설계

병원의 1~3층은 외래 공간으로 4층부터 10층까지는 A, B, C관으로 이어지는데 각각 분홍색, 하늘색, 보라색의 내부 벽 색깔로 구분해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중간 중간 전자식 안내판을 설치해 진료실 위치를 알기 쉽게 했다.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병원과 지하철역 사이

가 최단 거리라는 점이다. 방문객을 배려해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 병원 전용 출구(8번 출구)를 두어 병원 지하 1층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으며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외국인 환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 1층에는 거동이 불편한 정형외과 환자를 위해 관절·척추센터를 배치하고 외국인 환자 전용 진료 공간으로 지상 1층에



병원과 의대 건물 사이에 복원된 한국 최초의 여성전문 병원 보구녀관

국제진료센터를 두는 등 병원 전체를 환자 중심으로 설계했다.

1층 정문을 들어서면 시원하게 뚫린 천장에 넓은 로비가 펼쳐진다. 병원이 아니라 갤러리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이곳은 병원의 중심 공간인 아트리움이다. 중앙진료동과 외래동을 이어주는 아트리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뚫려 있는 폭 140m의 커다란 공간으로 천장에서 자연광이 들어와 지하 1층도 밝고 개방된 느낌을 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면 수요음악회가 열리는 아트홀이 한눈에 들어온다. 널찍한 무대 공간과 나무를 덧대어 객석처럼 꾸민 계단, 울림이 좋은 높은 천장은 유명 공연장 못지않은 위용을 자랑한다. 공연장의 천장은 3층 방주교회의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데 노아의 방주를 모티프로 설계한 유선형의 나무 장식이 돋보인다. 아트홀의 왼쪽 벽면은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기리는 도너스 월(Doner's Wall)로 장식되어 있다. 아트홀과 이어진 계단을 따라 오르면 기라성 같은 작가들의 전시를 볼 수 있는 문화전시 공간 아트큐브가 나온다. 모교 조형예술대학과 협약을 맺어 연간 4회의 기획 전시로 운영되며, 현재는 ‘부드러움과 형상들’이라는 3번째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여성 의료 및 여성 의료 교육의 히스토리를 담아낸 보구녀관

3층 웰니스아트존에 서면 맞은편 창문으로 별채처럼 지어진 한옥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1887년 서울 정동 이화학당 구내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이자 이화의료원의 모태인 ‘보구녀관(普救女館)’을 복원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여성을 위한 진료는 물론, 국내 최초의 여성의학 교육도 이루어졌다.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의과대학 건물과 병원 건물 중간 지점에 보구녀관을 재현해 놓았다. 마치 ‘제2의 이화역사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외관뿐만 아니라 과거 진료실로 사용하던 각 방 내부까지도 정성스럽게 꾸며 여성 의료 및 여성 의료 교육의 히스토리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3층에서 가장 눈에 띠는 곳은 병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웰니스 건강증진센터이다. 이화 동창이라면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곳에는 최첨단 의료 검진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뛰어난 판독 능력을 보유한 의료진들이 포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발길이 닿은 곳은 모교 대학교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방주교회이다. 작지만 거룩한 분위기의 예배실은 이곳을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두 손을 모으게 만든다.

병원의 또 다른 건축적 특징은 병원 4층에 거대한 중정 ‘힐링가든’을 둔 것이다. 자칫 어둡고



1. 1층 로비에서 천장을 보면 유리벽 너머로 하늘이 보인다

2. 3층 웰니스 건강증진센터

3. 방주를 형상화한 3층 방주교회의 아랫부분. 이곳이 아트홀의 천장이 된다

4. 병원의 휴식 공간인 4층의 힐링가든



1. 이대서울병원의 3인실 전경

2. 중환자실의 모든 병실은 1인실로 구성되어 있다

답답해질 수 있는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갖가지 식물과 조형예술 작품들로 꾸며 놓았다. 힐링가든에 설치된 계단식 구조물 위의 유리창은 병원 중앙홀의 천장이 되는 셈인데 덕분에 지하 1층 까지 햇볕이 들어 병원 전체 분위기가 아늑하고 편안해졌다.

병원의 권정희 사회공헌운영팀장은 “개원 초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악회나 작품 전시 등에 신경을 쓴 이유는 병원이 치료만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힐링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료원장님, 병원장님 등 경영진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리(음악)로, 눈(작품 전시)으로, 빛(지하까지 햇볕이 들어오는 건물 구조)으로 이곳에 오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편안함과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내과,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과목별 외래진료는 물론 관절·척추센터, 소화기센터, 심뇌혈관센터, 암센터, 웰니스 건강증진센터 등 센터 시스템을 도입해 진료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는 중증고난이도의 수술과 진료로 차별화 되려는 병원의 목표가 반영된 것이다.

이화 동창들을 위해 마련된 각종 혜택들

이화 동창들이 이화의료원을 ‘우리 병원’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병원이 각별히 이화 동창들에게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이다.

먼저, 건강 검진 30% 및 진료비(진료 재료비 제외)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 검진의 경우 배우자는 본인과 동일하게 30%, 직계존속은 2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웰니스 건강증진센터 02-6986-2222~4). 둘째, ‘이화가족 진료카드’ 발급을 통해 병원의 모든 전산화면에 동창임이 표시되어 보다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이화 동창 전용의 접수 및 수납 창구인 ‘이화가족창구(원무과 1층 3번 창구)’가 마련되어 편리하게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넷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동창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다섯째, 10명 이상의 동창 모임 때 건강강좌 및 전문 건강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사회공헌부 02-6986-5804). 여섯째, ‘병원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해 병원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다(사회공헌부 02-6986-5802~3).

권 팀장은 “이곳에 한 번 발길을 들여놓으면 이화 가족이기 때문에 병원의 의료진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로부터 살뜰히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동창들에게 ‘나의 병원, 우리 병원’이라는 마음으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 진료 예약 및 문의: 1522-7000(전화) / <https://seoul.eumc.ac.kr/>(홈페이지)

* 외래 진료시간: 오전 08:30~12:00 / 오후 13:00~17:00

글·정진숙(행정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소식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아시아지회연합회 발족식 참석

총동창회 김순영(약학 62) 고문과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은 2019년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미국 시애틀 Hilton Bellevue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 35개 지회에서 온 약 300여 명의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우애와 단합을 다지는 행사로, 올해는 'Go Green Ewha'라는 가치 아래 시애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시애틀 지회를 비롯, 남가주, 뉴욕, 텐버, 미시간, 보스턴, 볼티모어, 북가주, 북텍사스, 세인트루이스, 시애틀, 알래스카, 애틀랜타, 오레곤, 워싱턴DC, 클리블랜드, 휴斯顿지회 등에서 온 동창들이 참석했다.

3박 4일의 일정 동안 총동창회 임원진은 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회와 정기총회, 두 차례의 만찬, 주일예배 등의 행사에 참석해 북미주지회연합회 이화 동창들과 만남을 가졌다.

한편 총동창회 산하 아시아지회연합회 발족식이 9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명경 총동창회 부회장과 박순원(사회 77) 지역부장이 참석했으며, 모교에서는 김혜숙 총장과 최유미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아시아지회연합회는 아시아 지회 동창 간 교류 활성화 및 모교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발족했으며, 베이징을 비롯 심천,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지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대서울병원에서 10월 정기임원회 개최

총동창회 임원진 25명은 2019년 10월 10일(목) 11시 30분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임원진들은 병원 내 방주교회에서 기도와 찬송을 시작으로 병원 투어를 시작했다.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은 “영육을 온전히 치유하는 병원이 되기를, 선교하는 병원이 되기를 축복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이대서울병원에 그리스도의 항내가 가득하기를 기도했다.

임원진은 웰니스 건강증진센터를 둘러보고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안내받았으며, 대한민국 최초 기준 병상 3인실의 병실을 둘러보았고, 3년 고증 끝에 복원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 보구녀관, 병원 내 마련한 조형예술 전시공간 아트큐브 등을 둘러보며 병원 시설의 첨단화와 현대화를 체험했다. 이어 4층 오혜숙홀에서 문병인 의무부총장, 편욱범·조도상·박미애·정성애 교수와 환담하고 이대서울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축하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개원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키워 주셔서 자랑스럽다”며 “환자 엘리베이터와 방문객 엘리베이터가 따로 설치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다한 것이 놀라웠다”고 병원 측의 노고에 감사를 드렸다.

한편 이화의료원은 이화 동창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두고 있다(진료 재료비를 제외한 검진(30%) 및 진료비(10%) 혜택, 가족 건강도 살피는 검진 플랜(배우자 30%, 부모·조부모·자

녀·손주 20%), 이화 가족을 위한 원무과 접수창구 운영, 전자 차트 내에 이화 동창 인식 표시, 이화 가족 진료카드 제작, 동창 라운지 개인 휴식 등의 혜택).

임원진은 병원에서 제공한 도시락을 즐긴 뒤 2시 30분부터 같은 자리에서 26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창회 10월 정기임원회를 열고 안건을 토의했다. 먼저 총동창회 ‘대바자회’를 평가하며, “동창들의 친목 도모와 학생들에게 좋은 물건을 판매하여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나 “학교 교직원들이 수업과 홍보 부족으로 바자회 물건 구입에 어려움이 있으니 적극적인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학별로 대표 품목을 사전에 SNS와 같은 온라인에 올려 안내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3인을 10월 2일(수)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실사를 다녀온 뒤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로 사지숙(교육 55) 동창이 선정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9월 23일(월)부터 2박 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지회연합회 발족식에 이명경 부회장과 박순원 지역부장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선정 위한 ‘안양의 집’ 방문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11시,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임경희(간호 80) 간호대 회장, 박병희(약학 84) 문화부장, 한미경 총무, 이영희 홍보부장은 제13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실사의 일환으로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안양의 집’을 방문했다. 안양의 집은 설원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지숙(교육 55) 동창의 부모님이 1947년 설립, 대를 이어 사지숙 동창이 시설 아동을 돌보고 있는 곳이다. 사지숙 동창은 현재 88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5,000명 이상의 시설

아동을 보살펴 왔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 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이화 동창을 찾아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정한 상이다.



11월 정기임원회에서 이화가족성탄예배와 이화인의 밤 행사 논의

2019년 11월 14일(목) 11월 정기임원회가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3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이올(올해의 이화인 연합 모임) 행사와 함께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후원 이사 간담회 개최 소식을 알렸으며, 이화인의 밤 행사와 이화가족성탄예배 진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이화인의 밤 행사(1부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여, 2부 전배사와 만찬, 3부 작은음악회(조형예술대학 동창합창단, 이화발레앙상블, 윤형주 씨

와 함께하는 공연, 4부 행운잔치)를 안내하고, 동창들의 사진 촬영을 위해 로비에 포토존이 설치될 예정임을 알렸다. 이경숙(영문 70) 고문은 자랑스러운 동창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축하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올해의 이화인’과 ‘빛나는 이화인’ 후보를 2월 말까지 선정하기로 하였음을 공지하였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행사 참석을 보고하였다. 한편 이화가족성탄예배 시 예년과 다르게 현금위원을 모집하지 않고 현금 바구니를 입구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입구에서 현금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재학생과 동창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현금송〈이화 할렐루야〉를 하기로 했으나 동창들은 행사 시작 전 미리 와서 연습하고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12월 정기임원회로 2019년 공식 일정 마무리

12월 정기임원회가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1시 이태원 세프테이너에서 열렸다. 30명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인의 밤’ 행사를 평가하고, 총동창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행사 준비 참여, 후원 및 다양한 행운권 선물으로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당일 음악회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서 좋았다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멋진 공연으로 이화 동창들의 큰 박수를 받은 조형예대 동창합창단을 격려하고, 내년 동창의 날 합창제에서 1등한 팀을 ‘이화인의 밤’ 행사에 초청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13일(금) 김혜숙 총장 초청 오찬과 12월 16일(월) 이대의료원에서 주최하는 ‘특별 감사의 밤’

행사를 안내하고 많은 임원진이 참석해 줄 것을 독려했다. 한편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회칙 보완 개정위원회가 진행 중임을 보고하였으며, 이경숙 고문은 회칙 보완에 대한 건의사항은 각 대학 회장을 통해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8대 총동창회 임원진은 12월 정기임원회를 끝으로 2019년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총장 초청 오찬회 아령당에서 열려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12시, 김혜숙 총장 초청 오찬회가 모교 아령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모교 발전을 위해 수고한 총동창회 임원진을 격려하기 위해 김혜숙 총장이 마련한 자리로, 남상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22명과 최유미 모교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김혜숙 총장은 “모교는 이화 동창들과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총동창회 역시 더 활발하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지난 이화인의 밤에서 총동창

회에서 기부한 2억 5,000만 원은 이화의 후배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내년 진행할 학관 리모델링, 졸업생 취업 대책, 건물 확충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혜숙 총장은 과학 인력 양성을 위해 모교가



계획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모교가 발전하고 총동창회가 잘 되려면 모교와 총동

창회가 자주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이 자리를 마련한 김혜숙 총장 및 모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팀 공연 관람하고 격려

12월 7일(토) 오전 8시 30분,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이명경 부회장, 한미경 총무는 갓 뽑은 떡과 과일을 들고 모교 무용과를 방문해, 연습 중인 이화발레앙상블의 리허설을 관람하고 격려하였다. 이어 12월 14일(토) 오후 7시 30분 대강당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재학생 때부터 15회째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를 공연 중인 50여 명의 이화 동창단원들을 격려하였다. 이화발레앙상블(Ehwa Ballet Ensemble)은 모교 무용과 발레전공 재학생

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1992년 창단되어 모교 무용과 신은경 교수가 예술감독 및 안무를 맡고 있으며, 한국 발레의 발전과 사회적 공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글 · 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 선교부 소식

제40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

제40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으로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협회 3층 예배실에서 2019년 12월 3일(화)에 개최되었다.

1부 환송예배는 김은경(성악 64) 동창의 찬양 인도로 시작되었다. 사회자인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이 예배 전반을 이끌었고,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며

우리 삶에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모시도록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안영주(유교 88) 유아 교육과 선교부장의 기도가 모든 참석자를 대표로 하여 주님께 올려졌고, 노래선교단이 나와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찬양을 드렸다.

특송 후에 박희규 교목이 나와서 ‘마리아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눅1:46-56의 말씀을 설교했다. 박 교목은 이화의 창립자 스크랜튼 선교사와 연관이 깊은 지역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스크랜튼 선교사도 한국에 와서 느꼈을 외로움을 체감할 수 있었으

며, 왜 여기에 공부하러 왔는지 자문해 보는 시간을 통해 그분이 왜 53세의 나이에 조선의 땅에 왔어야 했는지 묵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유학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당신을 한국, 즉 한국전쟁이 있던 지역에서 온 동양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경험을 나누어 주며, 성경 본문에서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임태하였기에 그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따뜻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녀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을 것임을 말씀하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단기선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이 따뜻한 눈길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박효숙(교공 84) 동창의 격려의 말씀과 티벳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한 강현숙(교공 72) 목사의 권면의 말씀이 이어졌다. 단기 선교를 나가는 학생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들이었다. 예배를 마친 후 김미순(기독 75) 전 선교부장의 사회로 2부 순서가 진행되었다. 참석한 기독 동아리 및



선교단체는 노래선교단, 선교장학생, 예그리나, 비전선교단, 우리가 그리는 지도, 예수전도단, JOY, LDI였고, 각 학생들이 나와서 단기 선교 내용들을 소개하고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동창회에서는 귀한 식사를 섬겨 주셔서 참석한 모두가 기쁨 가운데 식사 교제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선교부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후원금과 선물을 준비하여 축복하며 격려해 주었다. 이날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에는 학생 27명, 동창 21명 총 48명이 참석하여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글·이수진(조소 05)

이화동창 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 평생회비(평생 한번 납부.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30만 원 – 2020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2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 – 2020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3년 이후 졸업 동창

■ 연회비(1년에 한번 납부)

3만 원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등봉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분 중, 주소가 변경된 동창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이화인의 밤’ 행사를 위해
행운 선물을 기증해 주신 분



1	정의숙 전 이사장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매	32	김미영 공과대학 동창회장	애완동물 퀼트 방석 2점
2	윤후정 전 명예총장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매	33	최은희 음악대학 동창회장	근화 모피 1점
3	장명수 이사장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매	34	신영선 조형대학 동창회장	E.FEEL 10만 원 상품권 3매
4	김혜숙 총장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매	35	한은주 사범대학 동창회장	설탕제로 수제 아카시아꿀 1kg 15점
5	남상택 총동창회장	2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매	36	정현미 법과대학 동창회장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3매
6	문병인 의무부총장	이대병원 페트검진권 1매	37	이호경 경영대학 동창회장	유한양행 눈&간 건강기능식품 세트 2점
7	윤순희 총동창회 전 고문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매	38	심 현 의과대학 동창회장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3매
8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LG 노트북 1대	39	임경희 간호대학 동창회장	드롱기 에스프레소 빙자동 커피머신 1점
9	이경숙 총동창회 고문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매	40	김용재 약학대학 동창회장	리주란 할리 세럼 영양크림 세트 3점
10	김영주 총동창회 고문	1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매	41	이향숙 대학원 동창회장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3매
11	이명경 총동창회 부회장	조선호텔 20만 원 식사권 3매	42	양수화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에트로 솔 1점
12	조미숙 총동창회 부회장	다이슨 에어캡 스타일러 1점	43	유지선 사회복지대학원 동창회장	송이향 백화고 세트 3점
13	임 진 총동창회 감사	유기농 장류	44	김순옥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장	SK매직 인덕션렌지 3점 한경희 에어프라이어 3점, 칼가위 세트 3점
14	신경희 총동창회 감사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5매	45	한경희 불문과 동창	한경희 에어프라이어 3점, 칼가위 세트 3점
15	한미경 총동창회 총무	정관장 홍삼농축액 1점	46	김세영 커미부 동창	Royal & Company 프리미엄 바디용품 세트 5점
16	김인정 총동창회 서기	칠레산 고급 와인 12점	47	박재리 물리학과 동창	호텔살롱제주 숙박권(2박) 3매
17	김현민 총동창회 서기	프랑스산 고급 와인 12점	48	신난식 성악과 동창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2매
18	임선희 총동창회 회계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3매	49	이소연 성악과 동창	오브엠 25만 원 구두상품권 2매
19	왕혜정 총동창회 회계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3매	50	이나경 서양화과 동창	아라가야 한복 상품권 1매
20	박병희 총동창회 문화부장	포인세티아 화분 30점	51	윤덕경 무용과 동창	리슬링 고급와인 10점
21	김곡미 총동창회 사업부장	sum 화장품 세트 3점	52	손지현 과학교육과 동창	올리페스 코스메슈티컬즈 마스크팩 120점, 화장품 세트 5점
22	류예행 총동창회 재정부장	SEKANSKEEN 캐시미어 머플러 3점	53	육명희 경영학과 동창	크리운 해태제과 선물세트 30점
23	박소현 총동창회 음악부장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4매	54	이하여자대학교 의료원	이대병원 건강검진권 3매
24	이영희 총동창회 홍보부장	정관장 홍삼농축액 1점	55	이화여자대학교 폐션디자인연구소	E.FEEL 코트 1점, 머플러 5점
25	홍은아 총동창회 회우부장	아디다스 축구화 1점	56	인터컨티넨탈호텔	인터컨티넨탈 2인 뷔페식사권 5매 대반 크림세트 7점,
26	박순원 총동창회 지역부장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3매	57	일양약품	실루드 유기농 비풀렌 세트 7점, 황제 황침단 세트 1점
27	성혜옥 총동창회 선교부장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3매	58	(주)농심켈로그	곡물이야기 알이 구운 통곡물 1,200점
28	이영우 총동창회 정보통신부장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3매	59	(주)샘표식품	백년동안 마이크로발효 양배추, 아로니아, 배수세미 원물 3포 세트 1,200점
29	이정화 인문대학 동창회장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3매	60	하슬라아트월드/젊은달와이파크	로제식초, 달달요리술 세트 1,200점
30	오숙영 사회대학 동창회장	순금 한돈 이데마크 목걸이 펜던트 1점	61	총동창회 선교부 화요기도회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티켓 50매
31	최은영 자연대학 동창회장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세트 3점	62	총동창회	수첩, 달력, 우산 각 1,200점

세계가 보는 한반도 통일 문제, ‘제6회 윤후정 통일포럼’ 개최

통일학연구원(원장 김석향)은 10월 2일(수) 오후 2시 ECC 이삼봉홀에서 ‘제6회 윤후정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윤후정 통일포럼은 한국 최초의 여성 현법학자이자 제10대 모교 총장을 역임한 윤후정 전 명예총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단 극복’이라는 신념으로 2013년부터 15억 원을 기부하면서 마련된 통일 논의의 열린 장이다.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세계가 보는 한반도 통일 문제’라는 주제에 관해 분단과 통일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석향(북한학과) 통일학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김혜숙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통일을 도모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다”며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날 포럼의 의의를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은 ‘G2 경쟁 시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반 총장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

해서는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봉(정치외교학과) 모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세완(경제학과) 모교 교수, 김태균 서울대 교수,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영주 국립외교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남북통일의 경제적 조건, 대북 제재와 개발협력의 딜레마, 주변 강대국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기여 유도 방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기구의 역할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펼쳤다.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 이후에는 2004년 탈북해 모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현인애(북한학) 초빙교수가 특별 발언을 통해 북한의 정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으며, 질의를 통해 통일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나누었다.



법학전문대학원

‘2019년 신임 법관’ 3명 배출 :

법관 임용 누적 인원 로스쿨 2위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오종근) 출신 법조인 3명이 ‘2019년도 일반 법조 경력자 신임 법관’에 임용됐다. 이로써 모교 법전원 출신 법관이 처음 임용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명의 법관을 배출, 전국 25개 법전원 중 서울대 법전원(1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법관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신임 법관 임명자는 김현영(법전원 1기) 판사, 김한울(법전원 2기) 판사, 김은혜(법전원 3기) 판사이다.

모교는 1950년 법률학과를 설치하고, 1996년 세계 최초로 여자 법과대학을 설립한 데 이어 2009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며 국내 최고 여성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법과대

학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학자,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배출하며 한국 법조계를 선도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을 이어 모교는 1991년과 2013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2015~2017년에는 사법시험 합격 인원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추세를 이어 2013년 및 2015년 재판연구원 임용 전국 1위, 2018년 재판연구원 및 검사 임용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왔으며, 이번 신임 법관 임용으로 법관 임용 누적 인원에서 전국 로스쿨 2위의 영광을 차지했다.



ECC 밸리를 빛으로 수놓다 :

패션디자인전공 졸업작품전 개최

11월 8일(금) ECC 밸리에서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졸업작품 발표회인 ‘2019 프리미에르 이화 컬렉션’이 개최됐다. 이번 패션디자인전공의 졸업작품 발표회는 전 세계 패션 분야를 선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협의기구인 국제패션대학교류재단(이하 IFFTI) 임원 총회가 11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모교에서 열린 가운데 마련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모교 패션디자인전공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IFFTI 정회원 자격을 취득해 활동 중이며, 2019년 임원 총회 개최에 이어 2021년에는 ‘IFFTI 2021 SEOUL_EWHA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패션디자인전공생 33명의 작품 65점을 선보인 ‘2019 프리미에르 이화 컬렉션’은 IFFTI 임원 총회의 마지막 날인 8일(금) 오후 7시 1,0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패션쇼를 위해 오픈 밸리 한가운데 T자 무대가 설치됐으며, 밸리 전체를 활용한 조명 및 파격적 영상 설치 등으로 응장한 위용을 자랑했다. 패션디자인전공생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은 총 7개의 스테이지에 걸쳐 공개됐으며, 야간 무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을 사용한 아트웨어 8개 작품을 비롯해 파격적인 작품들과 화려한 무대가 어우러져 많은 관객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영국의 LCF, 프랑스의 I.F.M,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 패션대학, 미국의 FIT, 캐나다의 라이어슨대학교, 홍콩의 홍콩 폴리테크닉 대학, 호주의 로얄멜버른공대 등 유럽,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최고의 디자인 교육기관 교수들로 구성된 재단운영 임원진 20명이 참가해, 국내 최초로 예술교육을 시행한 모교와, 예술 인재 양성을 선도해 온 조형예술대학의

교육 환경, 패션디자인전공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인했다.

모교 패션디자인전공은 2019 'IFFTI 임원 총회' 와 '2019 프리미에르 이화 컬렉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2021년 'IFFTI 2021 SEOUL_EWHA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한국 패션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2020년 1학기

MEDICI 문화예술강좌

날짜	주제	강사
3/11	옛 그림 감상법	동양미술사학자 이대명 교수 홍선표
3/18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 1	피아니스트 김주영
3/25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 2	
4/1	유럽도자기여행	유럽도자기여행 저자 조용준
4/8	메이지유신과 조선 도자기	
4/22	토스타~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오페라연출가 최이순
4/29	카르멘~집시 여인의 사랑과 열정	
5/13	양구의 격정과 애수, 탱고 춤과 음악의 치명적인 유혹	월드음악 칼럼니스트 황윤기
5/20	양구의 격정과 애수, 탱고!! 피아졸리와 카를로스 가르델	
5/27	미술사의 재구성1	미술사학자 이연식
6/3	미술사의 재구성2	
6/10	스페인 기타음악	기타리스트 이석우
6/17	현대미술의 이해, 사적 삶의 기록	경기대 미술경영학과 교수 박영태

*본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15과 5/6은 휴강입니다.

■교육시간: 매주 수
10:00~12:00 (13주)

■수강료: 350,000원

■신청기간:
2020년 2월 3일부터

■문의
02)3277-3111~6
010)4111-4982
<http://sce.ewha.ac.kr>



대학(원) 소식

자연과학대학

회장 __ 최은영(물리 87)

2019년도 가을야유회

자연과학대학 가을 야유회가 2019년 10월 21일(월) 백담사와 만해마을에서 있었다. 61학번 선배를 필두로 총 184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다섯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서울을 출발하여 만해마을에 도착 후, 기도와 함께 야유회를 시작하였다. 간단한 체조로 몸 풀기를 하고, 점심식사 후 단체 사진도 찍은 뒤 만해마을과 만해박물관 그리고 백담사를 관광하였다. 백담사에서는 해설사의 설명이 있어서 더욱 유익한 야유회가 될 수 있었다. 가을 단풍과 함께 선후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동창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내년에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코스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백담사와 만해마을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온 자연과학대학 동창들

조형예술대학

회장 __ 신영선(장미 88)

녹미합창단 '이화인의 밤'을 달구다!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 6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화인의 밤'이 개최되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조형예술대학 동창으로 구성된 녹미합창단이 초대되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조형예술대학의 단합과 창의성이 돋보인 해였다. 2018년도 동창의 날 합창제 때 <댄싱 퀸>을 불렀던 녹미합창단은 2019년도 합창제 때는 <써니>를 불러, 여성 고유의 자매애를 아우르는 곡을 통해 폭넓은 연령층의 동창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19년의 마지막을 수놓은 '이화인의 밤'에 초대되어 영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화인이 합창으로 화합된 하나를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조형예술대학 동창들

사범대학

회장__한은주(특교 79)

선정릉과 무령왕릉으로 가을 답사 여행

사범대학 동창회 회장단과 합창단은 두 차례에 걸쳐 가을 답사 여행을 다녀왔다. 2019년 9월 28일(토)에는 선정릉에서 작가인 황인희(사회과교육 83) 동창의 맛깔나는 해설로 성종과 제2계비 정현왕후의 능 선릉과 중종의 능 정릉에 서린 역사를 알게 되었다.

10월 17일(목)에는 계룡산자연사박물관과 백제 무령왕릉에 다녀왔다. 계룡산자연사박물관에서는 관장 조한희(과교 77) 동창이 직접 안내하며 박물관의 귀한 소장품과 그에 관련한 과학 이야기를 해주었다. 시대를 앞서 이끌어 가는 혜안과 의지에 감탄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힘 주어 하는 말에도 귀 기울였다. 모교의 사범대학 학생이라면 과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졸업 전 방문할 곳으로 추천한다. 무령왕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송산리 고분군 안에 있는데, 백제 왕 무덤 중 유일하게 주인을 알 수 있고 도굴되지 않은 유적이다. 이번 합동 답사를 통해 더욱 든든하고 활기찬 활동을 기대하게 되었다.



선정릉으로 가을 답사 여행을 다녀온 사범대학 동창회

의과대학

회장__심현(의학 80)

제12회 영닥터스포럼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2019년 9월 21일(토) 오후 4시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제12회 영닥터스포럼 및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영닥터스포럼은 일하는 엄마로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직 여성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선배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기획되었으며,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의 역대 수상자인 문용자(의학 62)·황연대(의학 63) 동창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여 주었다.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의 남준열 교수의 ‘A형 간염 진단과 관리’ 학술 심포지엄이 있었고, 우경숙(의학 72) 전 동창회장의 ‘역사 속 의인 박에스더’, 성시열(의학 81) 부회장의 ‘박에스더의 삶’, 박영미(의학 96) 영닥터스포럼 위원장의 ‘봉사하는 이화인’ 강의와 뮤지컬 〈박에스더의 꿈〉 공연이 진행됐다.

10월 13일(일) 가을야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73명의 동창이 참가하여 양평 두물머리를 시작으로 경기도 여주 고달사지와 신륵사, 명성왕후 생가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릉까지 이어진 문화유적을 답사하였



가을 야유회를 개최한 의과대학 동창회

다.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풍경 속에서 동창 선배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되었다.

약학대학

회장__ 김용재(약학 82)

정기총회 및 졸업 50주년 재상봉의 날 행사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루안에서 임원 51명이 참석하여 정기임원회 및 기대표 회의를 가졌다. 회장 인사와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특별위원회 및 각 부 보고가 있었다. 오찬 후 각 기별 최근 동정을 나누면서 동창 간 친목을 다졌다.

9월 26일(목) 총동창회 바자회에 참여하였다. 임원 및 동창들의 많은 후원물품으로 바자회의 목표를 잘 채울 수 있었다. 특히 34회 동창들이 개발한 보톡스팩과 신제품 비타민팩이 인기를 누렸다.

제56회 정기총회 및 약학 20회 졸업 50주년 재상봉의 날이 10월 28일(월)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있었다. 졸업 50주년이 되는 21회 선배들의 합창공연, 후배들의 답가, 축하 콘서트가 있었고, 오찬 후 정기총회에서 제32대 김용재 회장, 안소영(약학 83) 부회장, 김미정(약학 82) 부회장, 이미애(약학 79) 감사, 황미경(약학 79) 감사를 선출했다. 이어 김숙자(체육 64) 교수의 체조 시간, 행운권 추첨으로 기쁨과 행복을 나누었던 축제였다.

11월 7일(목) 오후 EOC 극장에서 21회 약학연구소 심포지엄이자 제1회 섬유화질환 제어연구 심포지엄이 열려, 동창회 약학연구소 후원회 박하영(약학 77) 위원장과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약대 MRC센터에서 7년간 연구비를 받기로 한 주제여서 활발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활기 있



졸업 50주년 축하식에 참석한 약학 59 졸업 동창들

는 심포지엄이 되었다.

생활환경대학

회장__ 백추혜(식생 72)

가을 야유회 행사

10월 22일(화)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아령회는 1년에 2회 야유회를 실시하여 동창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이번 가을 야유회에는 43명의 동창들이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화담숲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맛있는 이천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에는 호암미술관에 가서 한국근대미술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한국 전통 조경으로 어우러진 정원 희원에서 담소를 나누며 정다운 시간을 보냈다.



곤지암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온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계재

국어국문학과

회장__송동수(74)

가을을 만끽한 당진 나들이

2019년 10월 1일(화) 당진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어느 날보다 화사한 옷차림으로 70여 동창이 두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출발하였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추사 고택', 고즈넉한 고택은 동창들의 모습과 너무도 잘 어울렸다. 고택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이동한 곳은 당진의 아름다운 식당 '미당'이었다. 이름만큼이나 정갈하고 고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너른 정원에서 각 기별로 모여 차도 한 잔씩 하며 가을을 느꼈다. 마지막 장소는 '심훈의 기념관'. 모두가 국문과와 너무도 어울리는 나들이였다며 삼삼오오 사진을 열심히 찍었다. 두 손에는 작년보다 풍부해진 간식과 선물로 즐거움이 배가되었다. 내년에도 좋은 곳에서 선배들을 모시기로 약속하며



당진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온 국어국문학과 동창들

돌아오는 길이 무척 아쉬웠다.

불어불문학과

회장__유혜영(78)

방태산 계곡으로 즐거운 산행

2019년 10월 16일(수) 오색 단풍으로 타오르는 방태산 계곡으로 여행을 떠났다. 많은 동창들과 여유로운 가을을 느끼며 함께 걷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산행을 마쳤다.



방태산 계곡으로 산행을 떠난 불어불문학과 동창들

독어독문학과

회장__이봉무(72)

정기총회 및 송년 모임

2019년 9월 26일(목)에 열린 모교 총동창회 바자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개최한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회에서 독어독문학과 동창회는 실내외 겸용 모자와 모자에 어울리는 스카프를 내놓았다. 또한 정장이나 캐주얼에 모두 어울리는 현대 감각의 액세서리도 함께 판매하였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3회 동창들과 4회 권영희(70) 동창, 8회 동창인 이정화(74) 인문대 동창회 회장, 박인원 독문과 교수를 비롯해 여러 동창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지연(75)·이숙(88) 부회장은 바자회 물품을 판매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모교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독일인 김 에델트루트 명예교수가 11월 13일(수)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 서울시 명예시민의 날 행사에서 명예시민증을 받고, 명예시민 대표로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고(故) 김병옥 전 연세대 독어독문과 교수의 부인인 김 명예교수는 한독문학번역연구소를 설립해 한국의 독일문학 번역 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은평 샘지역아동센터를 개원하여 아동복지 를 후원해 오고 있다. 독문과 동창회에서는 축하의 의미로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11월 29일(금) 오후 6시 강남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2019 정기총회 및 송년 모임이 있었다. 이 날 명예시민증을 받은 김 에델트루트 명예교수와 이병애·이난희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동창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페라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용숙(84) 동창이 세익스피

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오페라, 뮤지컬, 발레로 변안한 작품을 소개해 주었다. 독문과 동창회에서 는 이화달력과 터치펜을 송년 선물로 증정하였다.

사학과

회장 __ 한상혜(73)

통도사와 옥산서원으로 가을 답사

2019년 9월 26일(목) 용수산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오랜만에 모인 자리인 만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반가운 한때를 보냈다.

10월 25일(금) 통도사와 옥산서원으로 가을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제28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모교 총장 이배용(69) 동창이 함께하여 답사지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배용 전 총장은 지난 7월 아제르바이젠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게 한 주역으로, 서원을 보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적 관점에서 문화와 접목된 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1월 28일(목) 용수산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이



통도사와 옥산서원으로 가을 답사를 다녀온 사학과 동창들

자리에서는 사학과 동창회 장학금 대상 학생 선정과 11월 25일(월) 열린 ‘이화인의 밤’ 행사 참석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문현정보학과

회장__계난경(88)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장학기금 전달

2019년 11월 2일(토)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학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기억을 만나고, 기록을 전하다’ 행사를 개최하고 동명의 문집을 발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도서관협회와 연세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등 각 문현정보학과에서 참석한 외빈들과 동창 및 재학생 230여 명이 참석해서 문현정보학과의 60년 역사를 반추하고, 학교 발전 및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등으로 모금한 1억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문집『기억을 만나고, 기록을 전하다』는 도서출판 비타 대표인 김지선(91) 동창의 재능기부로 출간되었고,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거리춤 이수자인 김영숙(69) 동창의 한국무용 공연과 박지현(18학번) 재학생의 독창, 문현정보학과 학생회가 제작한 동영상 등 동창들이 직접 행사를



학과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 문현정보학과 동창회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학과 창립 60주년 기념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학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1구좌 60만 원의 장학금 60개를 모금하려 했던 기금조성사업은 동창들의 호응에 힘입어 당초 목표를 훨씬 웃도는 1억 1,000여만 원의 모금 성과를 올렸다. 각 졸업 기수별 동창들은 물론 이화도서관발전위원회, 이화사서포럼 등 이화 문현정보학과 출신 소모임과 해외 동창들까지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룬 결과였다. 한편, 참여자들의 여홍을 둔운 경품 행사에는 온라인투어(대표: 박혜원(88) 동창), 동학식품(대표: 계난경 동창), 엠마앤리아(대표: 김수연(88) 동창), 해오름식품(대표: 김종완(89) 동창) 등 동창 기업들이 협찬해 주어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되었다.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회장__홍인화(80)

송년회 열고 따뜻한 시간 나눠

동창 송년회가 2019년 11월 19일(화) 호텔 리베라 서울 로즈홀에서 열렸다. 김동철·최선열(영문 70) 원로교수, 현직 교수들 및 1기(61학번)부터 44기(03학번)까지 80여 명의 커미부 동창이 참여하여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19년 한 해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홍인화 회장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1기 장명수(64) 이화학당 이사장, 김동철 원로교수, 최선열 원로교수 및 임소혜(98) 학부장의 격려인사가 이어졌다. 커미부 동창들은 맛있는 식사와 함께 행복한 이야기 꽂을 피웠다.

동창들은 드레스 코드에 맞춰 모두 레드 컬러



송년회에 참석한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동창들

의 의상과 액세서리, 소품 등으로 꾸미고 참가하여 겨울 시즌의 멋을 마음껏 발산하였다. 베스트 드레서상, 최다 참여기수상, 가장 젊은 동문상, 각종 퀴즈맞추기상 등의 수여는 동창들의 밤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다.

약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송년회는 44년의 격차를 뛰어넘는 선후배 및 동기들의 아름다운 만남과 이야기가 있는 축제였다. 누구보다도 젊고 진취적인 커미부 동창들의 진면모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자리였다.

물리학과

회장 __ 최은영(87)

기업 탐방 행사로 후배들에게 유용한 기회 제공
9월 17일(화) 물리학과 재학생들의 효성 ITX 본사 기업 탐방이 있었다. 이번 탐방은 물리학과 탁



효성 ITX 남경환 대표이사, 탁정미 상무와 함께한 물리학과 재학생들

정미(90·효성ITX 상무) 동창의 주관으로 이루어 졌고, 취업에 대한 열기로 많은 재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자연대학 동창회장인 최은영 동창과 물리학과 동창들이 참석하여 재학생 후배들을 응원하였다. 학생들은 Smart Factory 소개 및 xtmSolution 구현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남경환 효성 ITX 대표이사의 기업 소개를 경청했다. 강의가 끝난 후, 회식 장소로 이동하여 기업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재학생들은 이번 탐방이 기업의 정보를 얻고, 취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작곡과

회장 __ 원현미(88)

신음악회 창립 22주년 기념 작품 발표회

Ensemble Eins와 함께하는 신음악회 창립 22주년 기념 작품 발표회가 2019년 10월 14일(월) 오후 7시 30분 일신홀에서 열렸다. 작품 발표회에서는 홍성희(작곡 61) 교수를 비롯한 역대 회장 강순미(71)·임진(72)·오성란(78)·이상인(78)·문성희(80)·박은혜(87) 동창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이번 연주는 신음악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자리매김하는 귀한 음악회로 성황리에 마쳤다.



신음악회 창립 22주년 기념 작품발표회에 참석한 작곡과 동창들

동양화과

회장__ 박정란(86)

바자회에 참여하여 뜻깊은 하루 보내

2019년 9월 26일(목) 총동창회 바자회가 개최됐다. 올해 동양화과에서는 다시마, 미역, 김자반 등의 식품을 미리 주문받고, 바자회 현장에서는 의류를 판매하였으며, 부스를 찾아준 동양화과 선후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등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2019년 11월 19일(화)부터 24일(수)까지 동양화학부 4학년의 졸업전시가 모교 조형예술관 A동 2층에서 개최되었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보며 앞으로의 동양화과 전망이 기대가 됐다. 동창회 임원은 졸업 전시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작업한 4학년 후배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며 전시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다.



동양화과 졸업전시 오픈식에 참석한 동양화과 동창회 임원들

서양화과

회장__ 채정수(83)

바다 건너 모교를 찾은 남가주녹미회전

2019년 9월 17일(화)부터 28일(토)까지 조형예술대학 이화아트센터에서 남가주녹미회전이 열려



모교 이화아트센터에서 남가주녹미회전이 열렸다

LA에서 거주하는 동창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바다 건너 모교를 찾은 남가주의 녹미회원의 작품에는 정성과 열정이 가득했다.

총동창회 바자회에서 서양화과는 10호 정도의 크기의 동창 작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다수의 작품들이 판매되어, 동창회 기금 마련에 보탬이 되었다.

조소과

회장__ 나진숙(84)

이화조각회 제36회 정기전

2019년 10월 23일(수)부터 29일(화)까지 한벽원 미술관에서 이화조각회 제36회 정기전 'CONNECT THE DOTS 2019'을 개최하였다.

참여 작가는 다음과 같다. 이정자(66)·이종희(71)·박일순(74)·심인자(74)·황지선(74)·고혜숙(77)·임영란(78)·김영란(79)·김종희(79)·김희경(79)·신은숙(79)·신은주(79)·정혜영(79)·이선희(81)·김형주(84)·나진숙(84)·조미연(84)·박신정(85)·이현숙(85)·정미숙(87)·지명순(87)·김선미(88)·이채현(88)·장희준(88)·호해란(88)·김선영(89)·김정연(89)·이정원(89)·지연신(89)·장선아(90)·



한벽원미술관에서 열린 이화조각회 정기전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들

김연(91)·김윤경(93)·김서경(94)·김양선(94)·
조은희(94)·백인정(96)·오정선(96)·이지은(97)·
박은선(98)·오수연(98)·이지향(98)·강선구(99)·
차경화(00)·김순임(02)·이은선(02)·장유정(02)·
안소현(03)·이수원(12)·우유리(13)·박정향(15)
동창.

섬유예술과

회장__박희전(90)

격월로 열리는 예미회장단 회의

2019년 10월 19일(토) 오후 12시 신사동 한우리
본점에서 예미회장단 정기 회의가 열려 김혜순
(66)·오복환(66)·이상복(67)·윤귀영(71)·장영란
(77)·박정례(79)·봉지희(85)·박희전(90) 동창이
참석하였다. 예미회장단 회의는 격월로 열리는데



섬유예술과 동창 예미회장단

이번 회의에서는 9월 동창회 바자회 회계 결산,
녹미회 전시회 준비, 이화인의 밤 준비, 예미회
회원들의 전시회 활동에 관한 보고와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해마다 성공적인 섬유예술과 동창 바자회 활동
을 격려하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섬유예술인
의 전시회 활동에서 자부심을 고취하였다. 2020
년에 있을 녹미전시에서도 섬유예술인들의 적극
적 참여를 기대하고 성공적인 이화인의 밤을 기
원하였다.

생활미술과

회장__김곡미(87)

동창들의 참여가 돋보인 바자회

2019 총동창회 바자회에 참여하였다. 총동창회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김곡미 회장의 주관 아래
성공적으로 바자회가 진행되었으며, 바자회 물품
을 보내준 많은 동창들에게 감사드린다.

산업디자인전공 졸업 전시 'SIGNATURE, 우리
를 기록하다'가 2019년 11월 26일(화)부터 12월
1일(일)까지 조형예술대학 A동 이화아트센터에
서 진행되었다. 4년간의 배움과 노력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멋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총동창회 주최 바자회에 참여한 생활미술과 동창회

도예과

회장__김미경(87)

중국 경덕진 타오시촨 아트페어 및 전시 참여
도자예술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은 2019년 10월
17일(목)부터 20일(일)까지 2019 중국 경덕진에서
열린 'Taoxichuan Autumn contemporary
ceramic exhibition, Art Fair'에 참가하였다.



중국 경덕진 아트페어에 참가한 도자예술전공 학생들

무용과

회장__윤덕경(76)

'이화여대 무용과 동창회 열정의 밤' 개최
2019년 11월 30일(토) 프리마호텔 에메랄드홀에
서 '이화여대 무용과 동창회 열정의 밤'(추진위원



'무용과 동창회 열정의 밤' 행사에 참석한 무용과 동창들

장: 한명옥(79)·강혜련(83) 부회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무용과 졸업생들의 송년 모임으로, 전임교수를 비롯하여 역대 동창회장들과 1~52회 졸업생 120여 명이 참석했다. 3년의 임기를 마치는 윤덕경 회장에게 공로패를, 기부와 후원을 해온 동창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박사과정 재학생 4인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1부 순서로 기념행사 및 만찬, 2부 순서로 특별 공연 및 어울림의 시간이 진행되었다.

의류직물학과

회장__권혜정(84)

다양한 전시를 관람한 문화탐방팀

문화탐방팀은 2019년 9월 25일(수) 동대문 DDP에서 열리고 있는 '풀 스미스 전'을 관람하고 디자인의 세계에 매료되었다.

10월 23일(수)에는 경복궁과 주변 갤러리를 방문하여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30일(수) ECC 대산 갤러리에서 열린 조선 여인의 속옷을 주제로 한 '다소곳' 전에 최비숙(80) 전 회장, 권혜정 회장, 백진숙(84)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해마다 전통복식연구실이 한복을 주제로 하는 전시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풀 스미스 전'에 함께한 의류직물학과 동창들

식품영양학과

회장 __ 정조인(83)

선후배들과 함께 한 해의 뜻깊은 마무리

2019년 9월 26일(목) 열린 총동창회 바자회에서 식품영양학과는 기름 및 장류, 루마니아산 고급 와인 등을 판매하였는데 많은 선후배, 동창들이 찾아와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11월 25일(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총동창회 주최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10명의 동창들은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환담을 나누었다.



이화인의 밤에 참석한 식품영양학과 동창들

가나다순으로 계재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회장 __ 이보경(생미 80)

총장배 골프대회로 우정과 친목 나눠

2019년 10월 14일(월) '제14회 이화 장학기금 모금 총장배 골프대회'가 Buena Park의 Los Coyotes



김혜숙 총장의 남가주 방문 환영식에 참석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Country Club에서 1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동창 골프팀도 참가해 대학 간의 우정과 친목을 나누었다. 2부에서는 게임과 래플 추첨 순서가 있었는데 준비한 상품이 모자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이날 마련한 기금은 대학생 장학금으로 연말 송년회에서 수여하게 된다.

김혜숙 모교 총장의 남가주 방문 환영식이 10월 23일(수)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45명의 동창들이 참석해 총장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혜숙 총장은 세계적 여자 대학으로서 이화여대에게 주어진 글로벌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며, 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EGPP) 장학금을 소개

하였다. 개발도상국 여성들을 모교로 초청해 글로벌 여성 리더로 교육하고 있다는 설명에 동창들은 즉석에서 1만 달러를 모금하였다. 이 기금은 ‘남가주 글로벌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이화국제재단을 통해 모교로 전달할 예정이다.

10월 24일(목)부터 27일(금)까지 시애틀에서 개최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남가주 지회에서는 모두 32명의 동창이 참가하였다. 남가주 지회는 텔런트쇼에서 작년에 이어 최우수작품상(대상)을 받았다. 이어 총회에서는 지회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지회연합 매거진』에도 총동창회에서 발행하는 『이화동창』 회보와 똑같은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창들의 혼동을 막고 이화 소식에 신뢰성을 높이자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뉴욕 지회

회장__강혜경(영문 83)

지회 55주년 기념 연례만찬

뉴욕 지회 55주년 기념 연례만찬이 뉴저지주 포트리에 소재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2019년 11월 17일(일)에 열렸다. 이 연례만찬에는 120명의 동창과 24명의 이화 사위, 4명의 이화 가족 등 148명이 참석하여 늦은 가을의 축제를 함께 즐겼다.

김현우(서양 82) 부회장이 인도한 1부 순서에서는 학부에 다니는 교포 자녀 2명과 모교를 졸업하고 뉴욕 소재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후배 1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장학금을 받게 된 강은 총(성악 18) 동창은 노래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2부에는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양정윤(서양 00) 동창의 패션쇼 및 스타일링 클래스가 진행되었고, 3부 순서에서는 경품 추첨과 그룹 댄스



뉴욕 지회 55주년을 기념하는 연례만찬에 참석한 뉴욕 지회 동창들

로 한바탕 즐거운 잔치가 이어졌다. 동창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훈훈한 시간이었다.

대구 지회

회장__민경민(도예 86)

음악과 시를 감상하는 가을 모임

2019년 9월 27일(금) 12시 아트도서관에서 35명의 동창들이 시인 박지영(불어교육 79) 동창의 주관으로 ‘가을에 듣는 시와 음악’을 주제로 한 시강연, 낭독, 가을 음악 감상을 하였다. 이 행사는 잊혔던 가을의 정취를 살리고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0월 25일(금) 24명의 동창들이 담양의 죽녹원으로 연중행사인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죽림욕 산책로 8길, 이이남미디어아트센터, 정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다양한 생태문화시설을 관광



시와 음악을 감상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한 대구 지회 동창들

하였으며, 점심으로 단양의 유명 음식인 한우떡갈비를 맛보았다. 가을 햇살 아래 자연과 하나 되어 즐거워하는 동창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덴버 지회

회장 __ 백홍자(조소 80)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하이킹 즐겨

2019년 10월 3일(목) 덴버 부근 Pine Valley Ranch에서 하이킹을 하였다. 비교적 젊은 동창 8명 중심으로 모여 하이킹과 산책, 점심을 나누며,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가을 산과 강을 즐겼다. 서로의 근황을 교환하고, 총동창회에 관한 이야기며 다음 회장단에 대한 논의, 덴버 동창회가 지역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화라는 이름으로 만났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였다.



하이킹을 통해 일상 속 여유를 맛본 덴버 지회 동창들

독일·오스트리아 지회

회장 __ 이승진(영교 84)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창들이 한데 모여

2019년 9월 21일(토) 독일·오스트리아 지회의



독일·오스트리아 지역의 동창이 한데 모여 소중한 시간을 나눴다

2019년 총회가 열려, 독일 카셀, 쾰른, 마인츠, 마부르크 등 각 지역에 사는 12명의 동창이 프랑크푸르트에 모였다.

오스트리아에서 면 길을 온 이순애(체육 80) 동창, 쾰른에서 온 이선희(철학 80) 동창, 카셀에서 온 송명래(독문 70) 동창은 이승진 회장 집에서 이 삼일을 함께 지내며 동창회에 참석하는 열성을 보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점심 식사 후, 프랑크푸르트 근교 Kronberg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Schloss Hotel의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다. 모두 20대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커피를 마시며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었다. 이순애 동창은 참석한 동창들의 커피 값을 지불하였고, 유한나(최소은·독문 81) 동창은 본인의 시집과 수필집을 동창들에게 나누어 주고, 동창들이 치른 책값은 동창 기금으로 기부하였다.

이승진 회장은 새롭게 수정 보완된 동창 주소록을 나누어 주고,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총무를 대신하여 동창회 수입 지출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번에 남부영(법학 89)·이지현(독문 97) 동창이 동창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이화인으로서 한가족 같은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내년 총회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질 예정이다.

보스턴 지회

회장__ 김지영(교육 82)

캠프장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

가을을 맞아 뉴햄프셔의 작은 캠프장을 방문하였다. 캠프장은 김지영 회장의 부군이 경영하는 곳으로, 동창 가족들은 호숫가에서 카약을 타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김밥이랑 떡볶이, 오뎅국으로 맛있게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는 국궁, 도끼 던지기, 새총 등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며 야외에서 심신을 단련하는 기회를 가졌다.

10월 두 번째 주에는 이해원(약학 70) 이사장이 동창회 후원 이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따스한 환대 속에 모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동창 세 명을 별도로 초대하였는데, 셋 모두 그날 이사로 자원해 주었다.

서로 격려하며, 나누며,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늘 마음을 모으는 보스턴 지회는 동창들의 풍성한 만남의 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캠프장에서 국궁 체험을 하고 있는 보스턴 지회 동창들



일찬 프로그램으로 모임을 진행한 볼티모어 지회

City에서 동창회 모임이 부부 동반으로 열려 37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1부 순서에서는 강성례 회장의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보고가 있었고, 홍경주(약학 62) 이화국제재단 부이사장의 이화국제재단 보고가 있었다. 2부에는 심장내과 의사인 이광학(김선희(생물 69) 동창의 부군) 박사의 교양 강좌가 이어졌다.『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는 책 소개와 함께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강의였다.

3부 오락 시간에는 윤계현(사회과교육 59)·이현숙(섬예 71) 동창의 한국무용과, 명시복(윤계현 동창의 부군) 씨의 하모니카 연주가 있었고, 모인 동창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마무리하였다. 한편 스승 오평자(가정 65) 동창과 애제자 이현숙 동창의 뜻밖의 만남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인상 깊었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__ 곽정연(독문 76)

볼티모어 지회

회장__ 강성례(심리 67)

부부 동반으로 화기애애한 모임

2019년 11월 2일(토) Turf Valley Resort, Elliott

자선음악회 주최로 기금 모아

2019년 9월 7일(토) 12시, Hillsborough에 소재한 곽정연 회장 집에서 42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박명순(영문 62) 동창이 팔순을 맞이해 점심을 내어 Catering Food 기금 600달러를 북



곽정연 회장의 집에서 모임을 가진 북가주 지회 동창들

가주 지회에 후원했다. 동창회에서는 과일과 생일 떡을 제공했다. 10월 5일(토) 12시, Nijo Castle, Newark에서 10월 모임이 있었으며, 북가주 지회 주최의 1st Benefit Concert 자선 음악회가 10월 12 일(토) 6시 산타클리라 연합 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지휘는 조혜정(국악 90) 동창이 맡았고, 김지연(성 악 91)·이아람(관현 94)·고유경(성악 96)·구수경 (피아노 97)·김주미(성악 97)·전혜조(피아노 04)· 김미정(관현 09)·박은우(관현 13) 동창 등 음대 동 창 연주자들과 북가주이화합창단 30명이 참여하 였다. Fund 2,113달러를 모금하여 San Francisco Fire Dept에 전달했다.

11월 2일(토) 12시, 곽정연 회장 집에서 45명의 동 창들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번 점심은 특 히 김영자(약학 57) 동창이 그동안 세이빙 Plan하 던 것이 100만 달러가 되어 끝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창에게 점심과 떡을 대접하고, 선물을 준비해 제비 뽑기로 증정하는 등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애틀 지회

회장__신경림(장미 80)

지회 각 부서가 북미주지회연합회 준비에 매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준비하느라 박정혜

(체육 71)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들, 이해현(문정 74) 이사장과 여러 이사들, 이정형(약학 63) 리아 암스트롱 고문과 시애틀 지회 임원들, 시애틀 지 회의 전원이 총동원되어 최선을 다했다.

합창반은 2019년 11월 23일(토) 박정혜 동창의 집에서 포트럭 파티로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겼 다. 합창부원으로 이상희(기악 62)·백신자(영문 64)·소니아 김(신송자·영문 64)·김신자(사복 66)·조연자(기악 66)·양혜영(식영 68)·박성숙(기 독 69)·양명순(생미 69)·박정혜·이혜연(기악 71)·이경숙(국문 72)·조혜순(교공 72)·유영희(사학 74)·유명순(영문 79)·이재경(과교 80)·이지영(과 현 87)·김성아(종음 99)·김명옥 동창이 수고하였 다. 9월부터 격주로 만나 연습을 해왔던 사위합창 단은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토요 대만찬에서 Brother's Four의 〈Green Field〉와 송창식 작곡의 〈사랑하는 마음〉을 성공적으로 공연했으며, 깜짝 머슬맨 복장으로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윤향구 (동양 67) 동창의 사위인 제이 변 씨를 리더로, 주 대철(유양수(식영 74) 부군)·이돈희(김주숙(제약 78) 부군)·이광찬(황지연(의직 88) 부군)·홍윤선 (신경림 부군) 씨가 수고해 주었다.

사진부는 수준 높은 사진전으로 총회를 빛내 주 었는데, 전시회에 참가한 회원은 이정형·유태정 (심리 67)·윤향구·이혜연(기악 71)·유양수·김주 숙·박순분(영문 79)·김정혜(생미 83)·박연희(섬예



한마음 한뜻으로 총회 준비에 매진한 시애틀 지회 동창들

89)·한은정 동창이다. 골프부는 12월 4일(수)부터 10일(화)까지 이정형 리아 암스트롱 고문의 초대로 Puerto Vallarta, Mexico Golf Tour 여행을 떠났다. 이정형·유양수·홍성희(약학 68)·양명순·박정혜·현미경(국문 71)·하윤애(화학 73)·김주숙·이정렬(조소 11) 동창이 참여했다.

총회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인 박정혜 동창의 주도로 매달 만남을 가지고 총회에 관한 여러 사안을 점검하였다. 참가 인원 파악, 호텔 예약 상황, 국제재단 회의실 점검, AV 계약문제 등 숨 돌릴 새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새로 합류한 이찬주(동양 00) 동창의 동영상 제작과 박혜연(국문 01) 동창의 텔런트쇼 ‘배꽃 상조회’ 꽁트 집필 등 동창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재능이 빛을 발했다.

박정혜 동창은 타계한 부군 남궁요설 선생의 회고사진집을 기증하여 추가로 2,525달러를 기금으로 모금하였고, 월비섬 강 선생 내외가 기증한 유기농 라벤더로 박연희 동창을 비롯한 동창들이 향주머니를 만들어 1,000달러를 기증하였다.

12월 1일(일) Doubletree Hilton, Southcenter에서 부부 및 가족 동반으로 2019 시애틀 지회 송년의 밤이 열렸다. 이정형 동창의 팔순을 기념하여 사진, 유화, 목화, 서예 등 다수 작품을 가지고 회고전을 갖게 되었다. 김주숙·윤향구·박정혜 동창의 주선으로 송년의 밤에 회고전을 열게 되어 송년의 밤이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하게 되었다.



축하 공연 중인 애틀랜타 이화 합창단

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한인 2세 대학생에게 이화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9월 8일(일)에는 김아자(의학 63) 동창의 집에서 모여 정신과 의사 박영혜(의학 68) 동창의 우울증과 치료에 관한 강연을 듣고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9월 22일(일)에는 정문자(의학 66) 동창의 수필집 출판을 축하하는 출판 기념회를 가졌고, 애틀랜타 이화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10월 13일(일) 서라벌 식당에서 월례회 모임을 하였다. 이날은 김영례 동창이 행복심리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16일(수) 이화 골프회 주관으로 총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동창과 부군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 행사를 가졌으며, 올해의 총장 트로피는 차희숙 (체육 77) 동창이 받았다.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7명이 참가하였고 텔런트 쇼에도 참가하여 각본상을 수여 받았다.

11월 10일(일)에는 남부 한미 장학회에서 주최하는 장학금 모금 음악회에 합창단이 초대 받아 찬조 공연을 하였다. 애틀랜타 지회 선교부는 매 월 기도회 모임을 갖고 전 세계 각 곳에서 선교하는 이화 동창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외 동창 소식으로는 최인경(심리 89) 동창이 애틀랜타 화랑에서 2회의 미술 전시회를 가졌으며, 강혜정

애틀랜타 지회

회장_ 김영례(심리 79)

장학금 전달, 골프대회 등 다양한 동창 모임
2019년 9월 7일(토)에 한미 장학회에 1,000달러

(커미부 65) 동창이 문인화 전시회를 가졌다. 12월 8일(일)에는 부부 동반 송년 파티 ‘배꽃들의 향연’ 모임이 있었다.

울산 지회

회장 __ 김정근(장미 78)

동창들과 함께한 경주 나들이

2019년 4월 6일(토) 경주로 벚꽃놀이를 다녀왔다. 주전해변의 고즈넉한 횟집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후 경주 보문단지를 드라이브하며 만개한 벚꽃을 감상하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울산의 주상절리를 방문하여 주상절리의 기기묘묘한 모습에 감탄하였다.

5월 16일(목) 울산 롯데 호텔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반현진(작곡 94) 동창의 기도로 시작하여 임원진이 행사 보고를 한 후, 기별 동창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특강으로 울산대 김방술 성악과 교수를 모시고 ‘라보엠 오페라 감상’ 강좌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친목을 도모하는 행운권 추첨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10월 10일(목)에는 김홍명(회화 65)·신필주(국문 75) 동창의 『화가에게 보낸 시인의 편지』 출판을 후원하는 기념회가 울산 성남동 롯데캐슬스카이에서 열렸다. 두 동창이 시인과 화가로서 다년간 우정을 쌓으며 주고받은 편지를 묶어 만든 수필집은 선후배 간의 사랑과 존경, 우정의 결정체를 보는 것 같아 감동을 주었다. 출판기념회는 부회장인 고영한(교육 79) 동창이 맡아 수고하였고, 후원회 대표로서 김정근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 밖에 기별 대표로 서인교(교육 75)·류승희(영문 84)·서은정(관현 91)·이동현(통계 94) 동창이 참석

하여 후원금과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후원금은 각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모든 동창이 참여하는 성원을 보여 주었다.



김홍명·신필주 동창의 출판기념회 및 후원금 전달 모임에 참석한 동창들

워싱턴DC 지회

회장 __ 조은희(경제 91)

사랑의 목도리로 따뜻함 전해

2019년 11월 15일(금) 워싱턴DC에 소재한 Calvary Women's Service에 저희 니팅클럽 동창들이 지난 봄부터 짠 목도리 60여 점을 전달하였다. Calvary Women's Services는 가정 폭력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직장과 거처를 잃은 여성들에게 쉘터와 독립 생활을 위한 자립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이다. Calvary Women's Service Shelter 원생들을 위해 Christmas Gift Basket을 준비하는데, 올해는 기부한 목도리를 한 개씩 더 넣어 더욱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직접 짠 목도리 60여 점을 기부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일본 지회

회장__고정희(장미 74)

한일교류축제에 동창들도 적극 참여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 9월 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한일교류축제가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 크게 개최되었다. 일본 지회의 자문이자 3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사랑의나눔 회장이기도 한 김운천(평교원 96) 동창이 명동김밥 코너를 운영하여 고정희 회장과 문춘자(알프스 09) 이사 외 여러 동창이 함께 봉사하였고, 민단 청년상공회 멤버인 고나리(커미부 05) 동창도 음료수 코너에서 봉사하였다. 또한 송미연(커미부 86) 부회장, 김은경(커미부 01) 서기, 황민경(영교 86)·박경란(무용 90) 동창이 방문하여 바자 물건을 구입해 주는 등 동창들의 성원으로 한일교류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수익금은 거의 전액 기부로 한일친선사업에 사용되리라 예상된다.



한일교류축제에 힘을 보탠 일본 지회 동창들

자카르타 지회

회장__김미송(약학 82)

송년회에서 2020년 회장단 선출

2019년 9월 17일(화) 이은애(작곡 75) 동창의 주



이은애 동창의 클래식 강연으로 풍성한 시간을 보낸 자카르타 지회

재로 클래식 강연 3탄이 이어졌다. 이 동창이 준비한 블루투스 스피커로 풍성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 손글씨로 강의 내용을 적어서 설명해준 열정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12월 6일(금) Mulia 호텔 내 Il Mare 레스토랑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신입 회원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동창들은 모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담소를 나누고 연말 선물을 주고받으며 2019년 동창회를 훈훈하게 마감했다. 2020년부터 활동할 14대 회장단으로 회장에 한경화(문정 85) 동창, 총무에 윤혜성(화학 93)·민승홍(정외 98) 동창이 선정되었다.

김정은(파아노 06) 동창이 신입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김민지(기악 09) 동창이 오랜만에 동창회에 참석했다.

진주 지회

회장__김선호(서양 71)

동창들과 함께한 11월의 어느 멋진 날

2019년 11월 8일(금) 가까운 부산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대형버스 안에서 성악과 동창이 직접 그려 온 악보를 보면서 함께 부른 <11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모두를 들뜨게 했다.

테라로사 전시장에서는 해설가와 함께 갤러리 현대설치작품을 감상하고, 해운대에 들러 송도케이블카 전망대까지 갔다. 40대부터 80대까지 함께 한 진주 지회의 가을야유회는 선후배 간 베품과 섬김의 아름다운 축제였다. 돌아오는 길에 ‘이화인은 어떻게 세상에 비추어질까?’ 서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해 보며 다시 한 번 이화인임에 감사하고 자긍심을 갖게 된 소중한 하루였다.



가까운 부산으로 나들이를 다녀온 진주 지회 동창들

홀에서 이화연례오찬을 가지고 교환학생으로 온 채지연·박규리 학생과 함께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동 대학 Trina Dobberstein를 비롯해 Kristin Brewer, Kerry Mullen(from Residence Life) 관계자들이 함께 참가했다. 전민자·김정진(의학 72)·문성애·김영미·노희용·한정심(수학 83) 동창은 식사 후 두 학생들과 다정한 시간을 보냈고, 연말 모임에 학생들을 초대했다. 또한 학교 측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11월 17일(일) 12시 문성애 회장 집에서 지회 연례회의가 열렸다. 회장을 비롯하여 전민자, 윤정분·인명숙·김영미·노희용·한정심(수학 83)·전희선(의학 88) 동창과 교환학생 채지연·박규리 학생 등 모두 10명이 참가해 2019년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 선언에 이어 교가 제창과 함께 회계 보고와 리뷰가 있었다. 노희용 동창을 2020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그에 따른 새 임원진도 선출되었다. 한편 박규리 학생이 게임을 준비해 와서 선후배 간에 많이 웃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게임 이후에 동창들과 학생들은 제너레이션의 관점 차이를 아주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았다. 이화인으로 폐미니즘에 관한 의견은 아주 흥미가 진진했다. 모처럼 젊은 이화 학생들과 대화로 재충전되어 젊은 기분이 들었다. 끝으로 채지연·박규리 학생이 감사 편지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__문성애(생미 81)

모교에서 온 후배와 세대를 넘어 친교의 시간

2019년 9월 25일(수) 와이너리 겸 레스토랑 Coor's Hawk에서 동창 모임이 열렸다. LA에서 다니러 온 남궁희양(문정 86) 동창을 비롯해 전민자(약학 67)·윤정분(의직 69)·이선희(심리 70)·양인석(영문 72)·인명숙(약학 73)·김진경(의학 81)·문성애·김영미(영교 82)·노희용(약학 82)·김인숙(정외 83)·임영미(유교 83) 동창 등 모두 12명이 참석하여 가을 초입의 비치우드가 환하게 빛이 났다.

10월 23일(수)에는 볼드윈 월리스 대학교 (Baldwin Wallace University) 주최로 스트로셀커



동창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클리블랜드 지회 동창들

를 읽었다. 시간을 뛰어 넘는 이화 자매로 이곳 클리블랜드에서의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모두들 아쉬운 속에서 아름다운 연례회의 막을 내렸다.

파리 지회

회장 __ 함미연(불문 81)

추석맞이 점심 모임

2019년 9월 23일(월) 추분이 시작되는 화창한 파리의 가을, 원로 선배들을 모시고 추석맞이 점심 모임을 가졌다.

파리 7구 1 rue du Champs de Mars에 있는 '사모' 한식당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다같이 나누어 먹는 정겨운 모임이었다. 지난 여름의 피크닉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이 되어, 온 가족이 오랜만에 다시 모인 것처럼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어나갔다. 곧 다가올 연말 송년회 소식에 이번 해에는 또 어떤 깜짝 이벤트가 있을지 다같이 한껏 기대해 보기도 했다.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추석맞이 모임은 잘 마무리되었다. 타지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화인의 정을 나눌 수 있어 행복 가득한 한가위였다.



타지에서 한가위 명절 모임으로 정을 나눈 파리 지회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_ 박윤옥(간호 75)

모바일 메신저 활용으로 소통 원활

2019년 9월 모임은 필라 소재 두부식당에서 가졌다. 정기모임 후 불임 전문의로 현역에서 뛰고 있는 최정교(의학 71) 동창이 불임의 이해와 치료에 대한 세미나를 10명의 동창들에게 해주었다.

10월에는 체리힐 소재 비원에서 동창회를 하였는데, 체리힐 인근의 직장인 동창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처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한 전병희(약학 61)·엄선영(영문 71)·형경자(수학 76)·박영주(생물 82)·김미경(융합보건 85)·이은영(국악 89)·손경지(국제 07) 동창 7명을 포함하여 19명이 모여 다음부터 1년에 3회 정도는 체리힐에서 모이기로 했다. 특히 신세대 손경지 동창에게 국제학부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동창들이 많았고, 젊은 동창이 들어와 동창회가 더 활력 있게 느껴졌다.

11월에는 두부식당에서 12명의 동창이 모여 내년 회장을 선출했는데, 박윤옥 현 회장의 유임에 전원 합의하였다. 해외 이화 동창기금에 1,000달러를 보냈으며, 해양 선교 중인 이병인(김영미(영문 87) 동창 부군) 목사에게 500달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모바일 메신저가 가능한 동창들의 단체 메신저 방을 신설하여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어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동창이 7명이나 참석한, 체리힐 비원에서 모인 10월 동창회

엄정윤(자수 49) 동창

2019년 10월 28일(월)부터 11월 22일(금)까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박을복자수박물관(관장 오순희(생미 68))에서 2019년 가을 기획전 ‘四季–엄정윤 자수전’이 개최되었다. 엄정윤 동창은 모교 명예교수이다.



엄정윤 동창

최영희(간호 62)·김숙자(체육 64) 동창

2019년 10월 31일(목)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제60주년 기념식 및 제54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최영희 동창



김숙자 동창

최영희 동창이 제18회 김활란여성지도자상을 받았으며, 김숙자 동창은 제52회 용신봉사상을 받았다. 최 동창은 모교 간호대학 교수 및 학장, 대한간호협회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대 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하였다. 김숙자 동창은 모교 명예교수이며,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장,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한체육회 고문이다.

김혜순(섬예 66) 동창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보유자인 김혜순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매듭연구회’는 2019년 10월 8일(화)부터 18일(금) 까지 삼성동 국가무형문화재 전



김혜순 동창

수교육관 3층 전시관에서 한국매듭연구회 창립 40주년 기념전 ‘담다’를 개최하였다.

이정자(조소 66) 동창

2019년 12월 5일(목)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에 원로작가상을 수상하였다.



이정자 동창

윤시향(독문 68) 동창

윤시향 동창이 2019년 늘푸른 연극제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윤 동창이 번역했던 페터 한트케의 『어두운 밤, 나는 적막한 집을 나섰다』가 문학동네에서 재출간되었다.



윤시향 동창

박명숙(무용 72) 동창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9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 시상식에서 올해의 ‘공현예술가’로 경희대 명예교수이자 예술원 회원인 현대무용가 박명숙 동창이 선정됐다. 박 동창은



박명숙 동창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혜경(의학 73)·허창규(의학 73)·오혜숙(의학 78) 동창

2019년 11월 5일(화)부터 11일(월)까지 광진 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전시실에서 ‘봄 언덕 사진동네 사진전시회’에 참여하였다.

황지선(조소 74)·신은숙(조소 79)·손정은(조소 92)·김순임(조소 02)·라선영(조소 10) 동창
2019년 11월 2일(토)부터 10일(일)까지 일본 오타와
라시 예술문화연구소에서 제2회 한일 현대조각의
Vision전에 참가하였다. 아시아
조각연구회 회장인 신은숙 동창
은 「한국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
도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일반
사단법인 일본미술가연맹 기관
지 《연맹뉴스》에 발표하였다.



신은숙 동창

오숙환(동양 75) 동창

모교 명예교수인 오숙환 동창의
개인전 '자연의 호흡(the Breath
of Nature)' 이 2019년 9월 25일
(수)부터 10월 7일(월)까지 동덕
아트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오숙환 동창

이종영(서양 75) 동창

2019년 10월 31일(목)부터 11월 6
일(수)까지 평창동 아트스페이
스 퀄리아 갤러리에서 초대 개인
전을 열었다.



이종영 동창



고혜숙 동창

고혜숙(조소 77) 동창

2019년 11월 11일(월)부터 23일
(토)까지 7T 갤러리에서 초대 개
인전을 가졌다.

안은희(국제사무 77) 동창

프랑스 파리 89갤러리 관장 안은희 동창이 브리쏭
(Brisson)의 개인전 '클라우트: 에덴동산으로의 귀
환' 을, 큐레이터 질 바스티아넬리와 협업으로 기
획하여 조선일보미술관에서 2019년 12월 5일(목)
부터 15일(일)까지 전시하였다.



이나경 동창

이나경(서양 77) 동창

2019년 9월 18일(수)부터 29일
(일)까지 팔레 드 서울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조윤라(무용 77) 동창

충남대학 무용과 교수로 재직 중
인 조윤라 동창이 제39회 '올해
의 최우수예술가' 1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



황은미(국제사무 77) 동창

(사)커리어컨설팅트협회장인 황
은미 동창이 2019년 9월 27일(금)
전경련센터 토파즈에서 '사람과
커리어, 그리고 미래' 라는 주제
로 (사)커리어컨설팅트협회 10주
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황은미 동창

이순남(의학 78) 동창

2019년 11월 22일(금)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이대동창문인회

이대동창문인회(회장 이정자·기독 66)가 모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정한
'제1회 이화문예상' 수상자를 발표하였다(최우수작: 이수진, 우수작: 배정현·오덕
미, 가작: 윤도연·이다현·박서영·류호정·김유송). 한편 이화문학상은 김현숙(영
문 69) 동창이, 이화푸른문학상은 고은주(국문 90) 동창이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11월 21일(목)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정자 동창

한라1에서 개최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학술대회에서 제5회 올해의 교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순남 동창은 모교 의대 학장, 한국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초대 회장, 한국임상암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순남 동창

김영란(조소 79)·이정미(조소 85) 동창

2019년 10월 8일(화)부터 11월 17일(일)까지 청주 공예비엔날레에 참가하였다. 또한 김영란 동창은 7월 2일(화)부터 10월 6일(일)까지 바우지움 조각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영란 동창

서정숙(생미 79) 동창

남가주 지역의 모교 미대 동창들로 구성된 남가주녹미회(회장 서정숙)가 2019년 9월 17일(화)부터 28일(토)까지 모교 조형예술관 A동 이화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남가주녹미회는 ‘녹색의 다양함(Verdant in Diversity)’이라는 주제로 85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서정숙 동창

오현주(서양 79)·노경주(생미 85)·남여주(서양 86)·박진화(생미 89)·서경애(동양 90) 동창
2019년 10월 31일(목)까지 서담재갤러리가 개관 4주년을 기념하며 이화여대 동문초대 그룹전 ‘가을, 배꽃 피다’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이애정(사회과교육 86) 서담재갤러리 관장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조기주(서양 79) 동창

2019년 9월 3일(화)부터 10월 30일(수)까지 갤러리1

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조기주 동창

김미령(정외 80) 동창

대구대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미령 동창이 2019년 11월 13일(수)부터 17일

(일)까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최된 ‘제71차 미국세계노년학회 학술대회(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GSA 2019)’에서 행동과사회과학 영역의 GSA Fellow Award를 수상하였다. 김동창은 대구대 고령사회연구소장이며 재미한인 노년학자 학술회 공동의장을 맡았다.



김미령 동창

홍영미(의학 80) 동창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홍영미 동창이 최근 개최된 대한심장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2019 피인용지수 우수상’을 수상했다. 홍동창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홍영미 동창

박승현(제약 81) 동창

2019년 11월 10일(일) 서울 강남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이대약대 전국 개국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20대 신임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박승현 동창은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동주(약학 81)·한옥연(약학 83)·이화정(제약 91) 동창

2019년 11월 18일(월)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좋은 약, 건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린 제33회 약의날 행사에서 세 명의 동창이 수상을 하였다. 서울시약사회장 한동주 동창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약제부장이

자 모교 약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한옥연 동창은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모교 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화정 동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동주 동창



한옥연 동창



이화정 동창

강명옥(영문 82) 동창

2019년 6월, 2016년부터 근무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글로벌협력실장에서 퇴직하고 당초 설립하고 운영하던 (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로 복귀하였다. 7월에 2년 임기의 국제보건의료학회의 이사 위촉을 받았으며, 11월에 2년 임기의 서울시 청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았다.



강명옥 동창

김윤희(영문 82) 동창

김윤희 동창이 햅뷸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제6대 총장 자리에 올랐다. 김 동창은 성가포르 동아시아신학교 교수와 학생처장을 역임했으며, 1998년 햅뷸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설립 멤버이다.



김윤희 동창

차정인(생미 83) 동창

2019년 10월 9일(수)부터 20일(일)까지 서울혁신센터 시립미술관에서 '미메시스의 서고, 에크리튀르' 전을 가졌다.



차정인 동창

김효선(사회 84) 동창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김효선 동창이 '2019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여성선도상을 받았

다. 시상식은 2019년 11월 7일(목) 서초동 삼성금庸캠퍼스 비전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상패와 상금 5,000만 원이 수여되었다.

나진숙(조소 84)·이소영(조소 91) 동창

2019년 10월 26일(토)부터 12월 31일(화)까지 환기 미술관(관장 박미정(조소 84))에서 환기재단 40주년 기념전인 '미술관은 내용이다' 전시에 나진숙·

이소영 동창이 참여하였다. 또한 나 동창은 2019년 10월 17일(목)부터 12월 31일(화)까지 바우지움 조각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나진숙 동창 이소영 동창

이현숙(조소 85) 동창

2019년 10월 20일(일)부터 12월 5일(목)까지 갤러리 우모하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현숙 동창

박정란(동양 86) 동창

박정란 동창의 개인전 'White Space' 가 2019년 10월 1일(화)부터 6일(일)까지 가고시포 갤러리에서 전시됐다.



박정란 동창

안은미(무용 86)·도로시 엠 윤(윤미연·조소 99)·강유가람(강가람·교육 03) 동창

2019년 10월 17일(목)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에서 안은미 동창이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및 상금 500만 원)을, 도로시 엠 윤·강유가람 동창이 신진여성문



안은미 동창

화인상(여성신문사 사장상 및 상금 100만 원)을 수상하였다. 또한 안은미 동창은 10월 18일(금) '제68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이윤상(사복 86) 동창

2019년 12월 7일(토) 캄보디아 정부훈장을 수여받았다. 이윤상 동창은 나눔인터내셔널 대표로서 2011년부터 캄퐁참 주립병원을 비롯하여 몇 개의 병원에 응급실, 신생아중환자실을 개설하는 등 캄보디아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윤상 동창

권영은(섬예 87) 동창

2019년 10월 23일(수)부터 29일(화)까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에서 열린 성남아트포럼(SNAF 2019)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권영은 동창

김미경(도예 87) 동창

도자예술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김미경 동창이 2019년 10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남원국제도예캠프' 국제도예작가로 초대되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김미경 동창

김은숙(동양 87) 동창

2019년 11월 13일(수)에서 18일(월)까지 한벽원 미술관에서 동양화과 동문전인 이소전이 열려 김은숙 동창 외 17명의 동창이 참여하였다.

김태연·박경혜·박향숙·오윤선·유운경·윤혜정·이인숙·이지숙(이상 섬예 87) 동창

2019년 9월 25일(수)부터 10월 7일(월)까지 서울 성북동 갤러리 카페 연우재에서 모교 섬유예술과 1987년 졸업 동기들이 모여 '실로 물들다' 자수전

을 열었다. 같은 꿈을 공유하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다른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실'을 매개로 서로를 인정하고 위로하면서 풍경들을 자수로 풀어낸 전시였다.



섬유예술과 87 졸업 동창들

양정숙(법학 87) 동창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 양정숙 동창이 2019년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양 동창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대한변협 감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양정숙 동창

정미숙(조소 87)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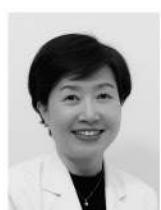
2019년 11월 6일(수)부터 11일(월)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정미숙 동창

강덕희(의학 88)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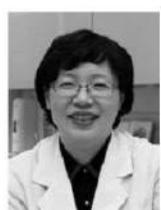
이대서울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덕희 동창이 공동집필한 「고요산혈증 및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요산강하치료」라는 논문이 세계적 신장 전문 학술지인 《네이처 리뷰》에 게재됐다.



강덕희 동창

김영주(의학 88) 동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주 동창이 2019년 12월 10일(화)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 보건의료기술 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 시상식에



김영주 동창

서 우수연구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수정(커미부 88) 동창

2019년 9월 5일(목)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서수정 동창이 운영하는 르브아 베이커리가 후원 단체 자격으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하였다. 르브아는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총 4억 여 원의 제품을 후원하여 기부와 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서수정 동창

문혜성(의학 88) 동창

이대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 센터장 문혜성 동창이 최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제11차 유럽로봇수술학회에서 한국 의료진으로는 유일하게 논문 초록이 채택되어 구연발표를 했다.



문혜성 동창

양재희(도예 88) 동창

2019년 9월 5일(목)부터 10월 1일(화)까지 다원디자인 갤러리에서 개인전 '단풍들다'를 가졌다.



양재희 동창

권희정(동양 89) 동창

2019년 11월 20일(수)에서 26일(화)까지 갤러리 라베리타에서 동양 89졸업 동기전 '비전-정적一步를 위한 면춤'이 개최되어 권희정 동창 외 9명의 동창이 참여하였다.

기혜경(영문 89) 동창

기혜경 동창이 부산시립미술관장에 임용되었다. 기 동창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을 역임했다.

김선영(조소 89) 동창

2019년 11월 9일(토)부터 12월 30일(월)까지 청학대 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을 가졌다.



김선영 동창

남영호(무용 89) 동창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2019년 11월 7일(목)부터 17일(일)까지 열린 '코레디시(여기 한국이 있다) 축제'의 예술감독을 맡아 행사를 총지휘하였다. '코레디시 축제'는 현대무용가 남영호 동창의 제안으로 5년 전부터 매년 열리는 한류 축제이다.

박혜영(의학 89) 동창

박혜영 동창이 이사장으로 있는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이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지역에 '부하라 힘찬병원'을 개원하고 2019년 11월 25일(월)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의사와 현지 환자간 화상진료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병원 시스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혜영 동창

윤순란(섬예 89) 동창

2019년 9월 25일(수)부터 10월 7일(월)까지 인사동 갤러리 밤에서 '있음과 없음'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 발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윤순란 동창

이보경(동양 89) 동창

이보경 동창의 개인전 'FREEZING A MOMENT'가 2019년 10월 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보경 동창

정호진(도예 89) 동창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32주년
후원의 밤 기념 초대전을 2019년
9월 16일(월)부터 10월 4일(금)까
지 여성미래센터 1층 허스토리홀
에서 가졌다.



정호진 동창

활동하는 인문학자 19명이 공동 집필하였다. 자장
면에서 훠궈까지, 중국 역사와 문학 속에 나오는
음식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어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맛볼 수 있다.

최은진(융합보건 89) 동창
보건복지부 주최 2019년 음주폐
해예방의 달 유공포상자로 최 동
창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시상은 2019
년 11월 14일(목) 서울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최은진 동창

홍동희(생미 89) 동창
2019년 10월 22일(화)부터 26일
(토)까지 모교 조형예술관 A동
이화아트센터에서 이화퀼트운영
위원회(운영위원: 홍동희 동창)
가 주관하는 '이화퀼트전'이 열
렸다. 전공과 학번이 다양한 선
후배들이 모인 뜻깊은 전시였다.



홍동희 동창

안수현(법학 90) 동창

2019년 11월 21일(목)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학회장에 선출되
었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안수현 동
창은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
시장조사심의위원, 충북대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장선아(조소 90) 동창

2019년 10월 8일(화)부터 14일(월)까지 성균관갤러
리에서 제15회 인문예술연구소 페스티벌을 기회
하여 전시, 강연 등에 참여하였다.

김영욱(교육 91) 동창

김영욱 동창이 제6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소설 은
상을 수상하였다. 김 동창은 그림책 연구자 겸 아
동청소년문학 번역가 및 작가로 활동 중이다.

김윤영(도예 91) 동창

2019 청주국제공예공모전에 입선하였다.

김지혜(도예 91) 동창

모교 도자예술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김지혜 동창
이 '청주공예비엔날레' 본 전시에 참가하였다. 전
시는 2019년 10월 8일(화)부터 11월 7일(목)까지 청
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에서 있었다.

유은경(도예 91) 동창

유은경 동창이 지도하는 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
자인과 학생들이 2019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캡스톤디자인 경진대
회에서 대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박미혜(의학 90) 동창
박미혜 동창이 제12대 대한산부
인과초음파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박 동창은 이대
목동병원 모자센터장, QPS센터
장, 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했으
며, 현재는 이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



박미혜 동창

**송진영(중문 90)·김지선(중문 91)·송정화(중
문 92)·최진아(중문 94)·문현선(중문 95)·정
민경(대학원 98) 동창**
『중화미각』을 출간하였다. 한국중국소설학회에서

심정원(사복 92) 동창

2019년 12월 4일(수)에 제14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심정원 동창은 성산복지관 대표로 근무하면서 소외계층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심정원 동창

이수연(성악 92) 동창

이수연 동창은 이대평생교육원에서 인문학 수업인 메디치 클럽을 운영하며 봉사하고 있으며, 동창들에게 학교 와서 강의 듣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화아르모니아 합창단의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수연 동창

김혜정(도예 93) 동창

모교 도자예술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혜정 동창이 개인전 ‘자/기/공/간’을 2019년 11월 7일(목)부터 17일(일)까지 스탠다드에이에서 가졌다.



김혜정 동창

서은애(동양 93) 교수

서은애 교수의 개인전 ‘관계의 관계’가 2019년 10월 23일(수)부터 11월 5일(화)까지 갤러리 도스본관 기획으로 전시됐다.



서은애 동창

송원자(독문 93) 동창

26회 송원자 동창이 2019년 9월 1일(일)부터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회계전공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송 동창은 한국 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 평의원, 여성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송원자 동창

김양선(조소 94) 동창

2019년 9월 9일(월)부터 10월 7일(월)까지 돈의문박물관마을 갤러리에서 ‘서울시 전시기획 공모 당선작 선정전’을 개최하였다.



김양선 동창

윤선미(법학 95) 동창

GS홈쇼핑 컨텐츠사업본부장 윤선미 동창이 GS그룹 2020년 임원인사 발표에서 상무로 승진 발령받았다. 윤 동창은 GS홈쇼핑 PD2 팀장, 영상영업담당 본부장을 거쳐 2018년부터 GS홈쇼핑 브랜드사업부장 상무보로 일해 왔다.

이주요(서양 95) 동창

2019년 11월 28일(목)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19’의 최종 수상자로 이주요 동창이 선정됐다. ‘올해의 작가상’ 출품작 전시는 2020년 3월 1일(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의 동창

이상의(동양 96) 동창

‘내 마음의 정원–옻칠그림’이라는 주제로, 2019년 10월 23일(수)부터 11월 10일(일)까지 갤러리 도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조양희 동창

조양희(무용 96)·마승연(무용 03)·어수정(무용 05)·황희상(무용 10) 동창

현대무용단 팀은 2019년 11월 23일(토) 모교 삼성홀에서 ‘제9회 젊은무용수 젊은안무가’ 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에서 마승연 동창은 〈Black Ice〉, 황희상 동창은 〈쉬지 않는 계단〉, 어수정 동창은 〈퇴행의 찬미〉, 조양희 동창은 〈Long Time No See〉를 무대에 올렸다.

이지은(조소 97) 동창

2019년 10월 2일(수)부터 31일(목)까지 열린 한국문화재재단 전시 ‘궁.시.통: 예술로 이어내는 활과 화살 그리고 화살통’을 기획하였다.



이지은 동창

동창은 200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뒤 무영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백신애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강서경(동양 00) 교수

강서경 교수의 개인전 ‘사각 생 각 삼각’이 2019년 10월 8일(화)부터 2020년 3월 10일(화)까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다.



강서경 동창

박효진(조소 98) 동창

2019년 9월 25일(수)부터 29일(일)까지 런던 사치 갤러리(Saatchi Gallery)에서 신미경 작가와 패션 디자이너 Roland Mouret의 콜라보레이션 Start X Roland Mouret 전시에 참여하였다.



이경희 동창

이경희(동양 98) 동창

2019년 11월 20일(수)부터 26일(화)까지 갤러리 라베리타에서 개인전 ‘Have A Rest’를 열었다.



정혜정 동창

정혜정(동양 98) 동창

정혜정 동창의 개인전 ‘아홉 번 째 이야기—우리의 모든 날이 아름답다’가 2019년 9월 4일(수)부터 9일(월)까지 갤러리아즈에서 전시됐다.



김시나 동창

김시나(생미 99) 동창

2019년 11월 6일(수)부터 12일(화)까지 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 갤러리 참외에서 ‘Hello Designer 展, Drem 꿈꾸는 어린이에게’ 전시를 하였다.



조해진 동창

조해진(교육 99) 동창

소설가 조해진 동창의 장편소설 『단순한 진심』이 제27회 대산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

김진영(불문 00) 동창

한국BMS제약의 신임 사장으로 김진영 동창이 공식 임명됐다. 김 동창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BMS의 사장 대행 역할을 맡아왔으며, 2012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국, 싱가포르, 타이, 태이완 BMS제약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 총괄 전무를 역임했다.



이덕희 동창

이덕희(의학 04) 동창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덕희 동창이 2019년 11월 8일(금) ‘제57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을 수상했다. 이 동창은 119 구급대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과 피드백은 물론 각종 재난 현장에 응급의료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성원 동창

양성원(피아노 06) 동창

피아니스트 양성원 동창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9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음악 부문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 국립극악원 우면당에서 열렸다.

우명희(무용 06) 동창

미국 유명 TV쇼인 〈Dancing With The Stars〉의 Dance Company인 'Dance With Me'에서 2019년 9월 2일(월)부터 한국인 최초 안무가 및 코치로 선정되어 활약하고 있다.



우명희 동창

이주향(한음 06) 동창

대금 연주자 이주향 동창이 정규 1집 앨범 〈트래디셔널 마켓(Traditional Market)〉을 발매했다. 이 동창은 대금 연주자이자 국악교육자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 정악을 이수했다.

홍지희(독문 06) 동창

독일 코블렌츠 대학 독문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홍지희 동창이 2019년 10월 Centre for Communication Studies에 임용되어 2020년 1월부터 정식 독일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조은미(도예 07) 동창

2019년 10월 17일(목)부터 11월 27일(수)까지 송도 갤러리 아트리움에서 초대전 '사이-인간, 공간, 시간'을 가졌다.



조은미 동창

백지은(동양 10) 동창

2019년 10월 16일(수)부터 22일(화)까지 갤러리 너트에서 너트 프라이즈 선정작가 개인전 '틀과 틈'을 열었다.



백지은 동창

김민경(동양 12) 동창

김민경 동창의 초대전 '기억의 조각들; Mise-en-scene'이 2019년 9월 10(화)일부터 19일(목)까지 송파구립 예송미술관에서 전시됐다.



김민경 동창

안정신(의학 12) 동창

이대여성암병원 교수 안정신 동창이 연세의대 유일한홀에서 개최된 대한종양외과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안지아(생미 12) 동창

2019년 10월 6일(일)부터 11월 1일(금)까지 장천갤러리에서 광림미술인선교회 물맷돌 프로젝트 제4회 청년작가 초대전을 가졌다.



안지아 동창

우유리(조소 13) 동창

2019년 9월 19일(목)부터 29일(일)까지 예술공간 서로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유태영(영문 13) 동창

작곡가 유태영 동창이 데뷔 앨범 〈그날, 문을 열다〉를 발표하였다. 작곡·편곡·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 연주까지 전담하여 작업했다.

박다솜(동양 17) 동창

현대판 문자도를 그리는 작가 박다솜 동창의 개인전 '음유심(音流心) – Music Flows in Me'이 2019년 11월 26일(화)부터 12월 1일(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한옥 청(聽)에서 개최됐다.

이수민(대학원 17) 동창

한국센서연구소 (주)대표이사 이수민 동창이 2019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동창은 2019년 우수벤처기업 전국 Top 10에 선정되었다. 반도체산업 첨단 클러스터 구축과 정부의 역할을 논문으로 쓴 이 동창은, 4차산업에서 중요한 국내 첨단 센서 산업 경쟁력 강화 선도에 기여하고 있다.



이수민 동창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18.12.31. ~ 2019.12.20. (과·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심리학과	작곡과	최진희(89) 3,000,000	피상순(24) 1,000,000
국어국문학과	채지영(89) 3,000,000	임 진(72) 2,000,000	교육공학과	김성희(87) 1,000,000
정미정(89) 3,000,000		문성희(80) 1,000,000	권미경(87) 1,000,000	박혜영(89) 3,000,000
중어중문학과		정소희(89) 3,000,000	장해영(89) 3,000,000	
안영호(85) 1,000,000		종교음악과	특수교육과	간호대학
김언주(89) 3,000,000		서윤숙(89) 3,000,000	최경식(75) 1,000,000	간호학과
영어영문학과	김진미(83) 1,000,000	한국음악과	한은주(79) 1,000,000	이자옥(75) 1,000,000
성혜숙(70) 1,000,000		양재희(80) 1,000,000	한미혜(86) 1,000,000	임경희(80) 1,000,000
이경숙(70) 1,000,000		최은희(81) 1,000,000	김현민(89) 1,000,000	정승은(86) 1,000,000
남덕자(73) 1,000,000		조형예술대학	박영희(89) 3,000,000	백경희(89) 3,000,000
강선숙(75) 1,000,000		동양화과	영어교육과	문현숙(92) 1,000,000
이정숙(77) 1,000,000		박인숙(78) 1,000,000	마윤미(84) 1,000,000	김현원(94) 600,000
홍성미(78) 1,000,000		양지혜(89) 3,000,000	이경림(89) 3,000,000	최애선(94) 1,000,000
방해성(82) 1,000,000		서양화과	사회과교육과	
최혜원(89) 3,000,000		박가나(89) 3,000,000	양윤선(89) 3,000,000	약학대학
정수연(01) 1,000,000		조소과	과학교육과	약학과
불어불문학과	김선흥(89) 3,000,000	김 선영(89) 3,000,000	유경희(83) 1,000,000	문 희(59) 1,000,000
김태경(81) 1,000,000		섬유예술과	이미선(89) 3,000,000	김순영(62) 1,000,000
배윤경(87) 1,000,000		전 경화(89) 3,000,000	정준순(72) 1,000,000	정준순(72) 1,000,000
최내경(89) 3,000,000		신경희(77) 1,000,000	이미애(79) 1,000,000	
독어독문학과	박종애(87) 2,000,000	조은숙(82) 2,000,000	조은숙(82) 2,000,000	이미애(79) 1,000,000
조행자(72) 1,000,000		생활미술과	김용재(82) 1,000,000	김용재(82) 1,000,000
이정화(74) 1,000,000		김곡미(87) 2,000,000	이 란(89) 3,000,000	안소영(83) 1,000,000
손희정(87) 1,000,000		김수정(89) 3,000,000	융합보건학과	박병희(84) 1,000,000
최민숙(89) 3,000,000		장식미술과	최은진(89) 3,000,000	최은경(89) 3,000,000
기독교학과	김희정(90) 1,000,000	신영선(88) 1,000,000	법과대학	제약학과
송강희(89) 3,000,000		도예과	정호진(89) 3,000,000	이선희(82) 1,000,000
철학과	박효서(92) 1,000,000	정호진(89) 3,000,000	법학과	이영미(89) 3,000,000
김영희(89) 3,000,000		체육대학	정현미(82) 1,000,000	
사학과	김성옥(72) 1,000,000	체육학과	송영숙(86) 1,000,000	생활환경대학
유영희(74) 1,000,000		조정희(86) 1,000,000	윤석희(87) 1,000,000	가정관리학과
최지영(89) 3,000,000		조보연(86) 1,000,000	이소희(89) 3,000,000	최혜순(75) 1,000,000
사회과학대학	황유경(89) 3,000,000	조정희(74) 1,000,000	윤정연(90) 500,000	윤소영(89) 3,000,000
정치외교학과	화학과	이영란(76) 1,000,000	조현지(91) 1,000,000	식품영양학과
유정희(73) 1,000,000		정재영(89) 3,000,000	태지영(92) 1,000,000	이은미(83) 1,000,000
금지현(87) 1,000,000		무용과	양소영(93) 1,000,000	조미숙(83) 2,000,000
백미순(89) 3,000,000		손경순(77) 1,000,000	안서연(02) 1,000,000	조우균(89) 3,000,000
문화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명경(77) 2,000,000	천정아(04) 1,000,000	의류직물학과
김종완(89) 3,000,000		박영애(81) 1,000,000		김유경(70) 1,000,000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미송(81) 1,000,000		최비숙(80) 1,000,000
김미령(69) 1,000,000		전유오(84) 1,000,000		권혜경(84) 1,000,000
김세영(87) 2,000,000		윤미정(89) 3,000,000		이혜경(89) 3,000,000
사회학과	음악대학	사법대학	이은경(87) 1,000,000	대학원
윤명근(72) 1,000,000	기악과	교육학과	이호경(87) 1,000,000	이학숙(88) 1,000,000
최영희(73) 1,000,000		윤순희(65) 1,000,000	김재신(89) 3,000,000	엄수경(12) 1,000,000
문명재(77) 2,000,000		김 영주(71) 1,000,000	윤은주(89) 1,000,000	
박순원(77) 1,000,000		김미영(89) 3,000,000	국제사무학과	교육대학원
정순경(77) 1,000,000		곽연희(89) 3,000,000	장은주(89) 3,000,000	진신자(71) 1,000,000
엄명숙(83) 1,000,000		현은자(82) 1,000,000	의과대학	양수화(74) 1,000,000
이재완(84) 1,000,000		강숙현(86) 1,000,000	의학과	
맹은주(89) 3,000,000		장태옥(87) 1,000,000	오혜숙(78) 1,000,000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성악과	유 청옥(88) 1,000,000	심 현(80) 1,000,000	전혜성(08) 1,000,000
이화수(77) 1,000,000		김 용희(89) 3,000,000	성시열(81) 1,000,000	최영은(08) 1,000,000
김경숙(89) 3,000,000		초등교육과	김태경(84) 1,000,000	김순옥(19) 1,000,000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16.1~2019.12(과·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장명수(64) 300,000	나효선(70) 300,000	김준희(67) 300,000	약학대학
	김성자(61) 300,000	사회학과	피아노과	영어교육과	약학과
	박미혜(64) 300,000	김우진(08) 500,000	우숙영(87) 500,000	계기원(69) 300,000	문은선(49) 300,000
	송호연(69) 300,000	사회복지학과	채성내(92) 500,000	김영숙(69) 300,000	이정자(66) 300,000
	최경희(77) 300,000	오명자(65) 300,000	송혜영(96) 500,000	안경숙(78) 300,000	김덕길(69) 300,000
	영어영문학과	한인영(72) 300,000	성악과	정인숙(69) 300,000	정인숙(69) 300,000
	김세영(50) 1,000,000	박영애(79) 300,000	이혜자B(65) 300,000	고명순(72) 300,000	고명순(72) 300,000
	박명자(67) 300,000	정유선(02) 500,000	이영애(68) 300,000	임형순(73) 300,000	임형순(73) 300,000
	정성희(69) 300,000	심리학과	작곡과	민태희(70) 300,000	정용희(75) 300,000
	양연수(70) 300,000	이은실(60)1,300,000	김감자(67) 300,000	송선향(78) 300,000	민명수(79) 500,000
	최선열(70) 300,000	송혜숙(73) 300,000	종교음악과	손혜경(80) 500,000	안소영(83) 500,000
	김희자(76) 300,000	김정애(76) 300,000	오지영(88) 500,000	부은령(81) 300,000	유별내(02) 500,000
	김남민(78) 300,000	경제학과	한국음악과	김방희(85) 500,000	
	이명실(78) 300,000	박민정(02) 500,000	양재희(80) 300,000	과학교육과	
	이해남(79) 300,000	자연과학대학	조형예술대학	손지현(89) 500,000	생활환경대학
	김종우(80) 300,000	수학과	동양학과	융합보건학과	가정관리학과
	김동연(93) 500,000	노선숙(79) 300,000	강미연 300,000	유형심(90) 500,000	이숙현(67) 300,000
	박지희(07) 500,000	통계학과	설유예술과	법과대학	최순자(68) 300,000
	송세일(09) 500,000	유시내(96) 500,000	김성희(89) 300,000	법학과	김진원(75) 300,000
	김민경(16) 500,000	물리학과	생활미술과	이미대안(55) 300,000	지영서(80) 300,000
	불어불문학과	이수영(93) 500,000	김명임(63) 500,000	차명희(66) 500,000	식품영양학과
	임채문(67) 300,000	서정은(08) 500,000	신수연(69) 300,000	권성희(86) 500,000	박진자(71) 300,000
	이원옥(68) 300,000	화학과	장식미술과	양옥희(90) 500,000	강종은(74) 300,000
	김영혜(77) 300,000	정준희(71) 300,000	김승연(88) 500,000	정영심(00) 500,000	김광옥(75) 300,000
	배혜화(77) 300,000	김정원(76) 300,000	체육대학	윤수영(07) 500,000	황은주(75) 349,534
	독어독문학과	생명과학과	체육과	경영대학	국제학부
	민용자(67) 300,000	류 우(60) 300,000	방봉세(51) 300,000	경영학과	국제학과
	이숙경(68) 300,000	김문자(65) 300,000	서희경(69) 300,000	나민경(98) 500,000	최수안(06) 500,000
	임병희(74) 300,000	이혜숙(67) 300,000	박경실(78) 300,000	조유진(09) 500,000	사회복지대학원
	사학과	조애현(74) 300,000	무용과	조제숙(73) 300,000	유지선(18) 500,000
	임계순(67) 300,000	공과대학	이경신(72) 300,000	이광희(74) 300,000	정책대학원
	오영옥(68) 300,000	환경공학과	사범대학	의과대학	전혜성(08) 500,000
	전진순(68) 300,000	전유진(16) 500,000	교육학과	이용옥(60) 300,000	신학대학원
	사회과학대학	건축학부	사지숙(55) 300,000	이덕용(75) 300,000	천미영(14) 500,000
	정치외교학과	심미혜(09) 500,000	김신지(68) 300,000	임선영(82) 300,000	박기옥 300,000
	구혜정(71) 300,000	음악대학	불 명(74) 300,000	유아교육과	박인숙 300,000
	김미령(80) 300,000	기악과	정명자(68) 300,000	간호대학	
	문화정보학과	윤연경(49) 300,000	임형란(71) 300,000	유미경(01) 500,000	
	홍승진(65) 300,000	최승현(63) 300,000	조정진(67) 300,000		
	윤소영(73) 300,000	교育공학과	교육공학과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정진(67) 300,000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19.1~2019.12(과·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강은전(60)	배옥자(61)	구선희(64)	신효재(66)	신연임(69)	전신애(75)	정운현
국어국문학과	김중자(60)	최정숙(62)	안정환(65)	장영주(66)	유원화(69)	백영자(76)	중어중문학과
이영옥(58)	육완정(60)	오명주(60)	유정자(65)	정준선(66)	이명숙(69)	이채은(07)	안영호(85)
임인진(58)	남우온(61)	이춘지(63)	윤수영(65)	임완숙(68)	장종옥(70)	안유진(15)	강영매(86)

김연주(89)	이윤하(14)	문영주(67)	김경자(68)	김문정(87)	권순임(91)	박영자(68)	최연규(97)
김인효(16)	독어독문학과	황의자(67)	김영선(69)	관현악과	주보림(93)	박정수(68)	이현욱(02)
영어영문학과	오영란(67)	신상희(74)	김순옥(74)	이순자(59)	도예과	박정옥(68)	과학교육과
류수인(50)	조영주(68)	김노미(88)	남상택(74)	김자영(03)	남연숙(86)	신명자(68)	송옥자(66)
김순자(55)	박효순(69)	카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불 명(75)	성악과	김미경(87)	이재옥(68)	이순자(67)
김승숙(55)	위재숙(69)	최광순(64)	불 명(75)	석정자(67)	서혜수(88)	장예순(68)	한옥희(67)
백형진(55)	이금숙(69)	조애진(66)	이숙희(83)	왕아자(67)	디자인학부	김임순(70)	한태화(68)
천영애(55)	최영민(71)	차경애(66)	최혜경(83)	이정숙(69)	신은경(04)	유승희(70)	이영희(75)
김형식(56)	불 명(72)	한명미(67)	이미경(86)	석혜원(94)	김경현(12)	박문숙(72)	송영희(77)
이인주(56)	이계숙(72)	김미령(69)	배주연(88)	작곡과	김민정(14)	서성필(75)	손지현(89)
함선영(56)	목승숙(91)	김인자(73)	한미경(88)	강순미(71)	한은지(15)	박영숙(81)	수학교육과
곽경수(57)	황지숙(91)	백수경(79)	정세현(92)	임 진(72)	윤다정(08)	윤봉선(76)	
박재옥(60)	기독교학과	최연미(79)	류승희(06)	김희영(82)	체육대학	유아교육과	융합보건과학
최영희(60)	김영화(65)	이 란(81)	화학과	종교음악과	체육학과	유근희(61)	신정례(67)
구훈모(62)	김봉희(66)	이민경(81)	강영옥(60)	방명주(73)	성경순(49)	최영란(61)	이주순(73)
고영자(63)	이정자(66)	조희수(86)	김정남(60)	김명수(75)	조성환(49)	김영주(71)	이선숙(74)
김정매(63)	이혜재(66)	서수정(88)	김종은(60)	박소현(99)	김정자(56)	임선희(72)	오명신(78)
문영혜(63)	장수자(66)	송지은(01)	박영현(60)	한국음악과	이요식(57)	연동숙(81)	임찬희(78)
박봉숙(63)	유미은(70)	사회학과	양수경(67)	정연수(00)	이영옥(62)	송은미(85)	최은진(89)
박해경(63)	김정언(12)	장의순(62)	이인희(70)	정연수(00)	김감자(64)	김윤미(86)	
엄윤성(63)	철학과	최용소(65)	안소영(73)	김현숙	이성여(65)	유청옥(88)	법과대학
유영애(63)	김영희(89)	박상길(66)	배경화(74)	김혜자(66)	최병화(66)	고정자(64)	법학과
정해원(65)	이성은(15)	정행자(66)	정승희(85)	최춘자(66)	이행자(65)	윤명열(60)	
정혜주(65)	허지선(16)	이수인(67)	이연승(88)	홍영옥(59)	전성자(67)	이홍배(61)	
오경임(67)	사학과	조정자(67)	정혜선	동양화과	최영숙(69)	유희숙(65)	
이영숙(68)	손경수(60)	유혜숙(69)	생명과학과	불 명(77)	송은경(88)	홍경자(65)	
이유경(68)	이은숙B(60)	이효원(69)	이정애(59)	박동미(79)	문규순(70)	윤혜숙(70)	
이인숙(68)	정민자(61)	이현숙(70)	정영애(60)	최영희(60)	윤남숙(72)	노정숙(74)	
송혜영(69)	김학자(62)	김난숙(74)	이승은(89)	이승은(89)	이영란(76)	반주원(76)	
김순희(70)	남상훈(62)	문명재(77)	강태화(61)	이상형(92)	이미나(81)	양영선(81)	
이경숙(70)	오옥환(68)	김은미(81)	정은자(61)	서양화과	허주현(88)	이정옥(81)	
이정희(70)	임지향(68)	사회복지학과	최순자(67)	최경옥(63)	홍은아(03)	장해영(89)	
이종희(70)	정혜자(72)	이정숙(61)	윤영애(68)	이선희(67)	무용과	조원희(97)	
고경원(71)	한상혜(73)	최태순(62)	조영현(74)	박가나(89)	김경수(70)	윤석희(87)	
김수연(71)	이재순(75)	조의숙(63)	박현경(81)	조소과	손경순(77)	박성해(88)	
서우규(72)	정현주(76)	김일숙(67)	조보연(86)	정혜영(79)	최경식(75)	이시온(11)	
황점준(73)	최유리(84)	고순자(69)	김종미(88)	서옥천(81)	한은주(79)		
이영옥A(74)	김연주(96)	김태희(94)	박미향(89)	설유예술과	김태연(81)		
백혜련(75)	류호선(00)	심리학과	조가현(09)	함인숙(61)	김은경(87)		
김혜숙(76)		오봉립(61)	공과대학	오순영(64)	김영옥(79)		
이정숙(77)	사회과학대학	이운주(63)	박순자(66)	장명옥(71)	김유련(97)		
문영희(79)	정치외교학과	최명숙(57)	송기정(69)	연제은(75)	사범대학	최종숙(72)	경영대학
이옥배(79)		윤혜자(61)	장신호(69)	김인정(87)	교육학과	김영선(78)	경영학과
윤경숙(80)		최금자(66)	조상옥(76)	봉지희(85)	마운미(84)	김옥순(68)	
최정숙(82)	문경희(67)	주인혜(86)	김희경(03)	김삼선(88)	이보영(88)	이영애(69)	
박경애(83)	김영숙(70)	염현경(89)	음악대학	박희진(90)	이호경(91)	이호경(87)	
김주희(92)	김영희(70)		음악과	남희경(03)	김재신(89)	김재신(89)	
불어불문학과	백영옥(70)	자연과학대학	조영숙(53)	생활미술과	왕혜정(89)	왕혜정(89)	
권남규(64)	서염미(70)	수학과	이혜선(70)	이민정(67)	사회과교육과	박정희(74)	
김송자(64)	서정희(70)	윤학과	이현수(56)	권유봉(58)	조성실(72)	김영선(78)	
윤용범(64)	이양준(70)	윤연상(62)	이미숙(72)	김성숙(59)	최종숙(72)	마운미(84)	
성명숙(66)	이연표(70)	김상기(69)	주영희(57)	김춘심(59)	김정희(55)	윤은주(87)	
이초혜(66)	조백련(70)	노현숙(71)	기악과	심재완(59)	이선희(61)		
엄선경(67)	조복선(70)	김경애(72)	황경현(63)	이양순(59)	이영희(58)	이선희(61)	
이경혜(67)	하정희(70)	이숙자(73)	윤미재(65)	한임순(59)	김성숙(59)	이영희(58)	
이한순(67)	남성희(74)	류경라(81)	안미자(66)	권혜숙(61)	이선희(61)	이영희(58)	
한수옥(69)	행정학과	김미옥(84)	양유순(68)	김곡미(87)	서천식(61)	이영자(66)	
정광자(73)	정희정(92)	송유정(94)	구희진(07)	최유미(89)	백영자(63)	성봉기(68)	의과대학
김보경(81)	김선우(16)	물리학과	피아노과	장식미술과	김지연(69)	김지연(69)	의학과
이미애(90)	문현정보학과	모혜정(62)	신금선(50)	김정근(78)	노덕자(69)	차순자(60)	
오자은(91)	최선희(65)	정경옥(63)	불 명(76)	고정란(82)	정정숙(63)	이종원(62)	
				구순희(65)	노여숙(69)	우복희(63)	
				최경실(84)	심기종(65)	성정주(64)	
				김은영(85)	오금희(65)	이영우(64)	
				신영선(88)	윤순희(65)	이현숙(64)	
				김지연(90)	정미자(65)		

방희연(68)	한숙자(60)	예경혜(64)	김태련	최정순(커미부 87)	시애틀 (300달러) 339,000원
이규현(68)	한영숙(60)	윤승자(64)	김형경	신경화(조소 88)	싱가포르 1,200,000원
김정자(70)	황명순(60)	박정자A(65)	노 용	홍기은(교공 88)	애플랜타
주문희(70)	고화영(61)	김종화(66)	노미란	김수진(경영 91)	(1,000달러) 1,149,840원
유경화(74)	김옥녀(61)	윤춘자(66)	문경숙	이유진(섬에 95)	알래스카 240,000원
유경희(74)	민영례(61)	조규화(66)	문화자	전주 750,000원	김연순(화학 59)
최금자(74)	이남우(61)	박순자(67)	민명기	차인자(영문 50)	백도숙(영문 59)
최신영(74)	이은실(61)	최민자(67)	박복자	유재신(생명 59)	김명순(간호 62)
이경자(75)	이종희(61)	김대순(68)	박혜영	이순례(수학 59)	김순명(교육 62)
김정혜(77)	김순영(62)	배계현(68)	백경희	김영원(피아노 61)	천규운(사학 81)
이용주(77)	조수남(62)	이경일(68)	성인숙	국혜원(사학 62)	김수연(커미부 86)
이혜성(77)	김기방(64)	불 명(75)	심세화	조덕이(생명 64)	이유경(과교 89)
오혜숙(78)	김송윤(64)	가정관리학과	안명수	이주자(사교 67)	최유실(생미 90)
이진숙(78)	김정경(64)	임정희(79)	안희정	장 숙(교공 70)	영국 510,000원
홍기숙(80)	백정자(64)	의류직물학과	양경희	안명옥(심리 70)	박영숙(영문 64)
정성애(91)	이정혜(64)	장영희(67)	우경화	박숙희(교공 70)	손선혜(영문 66)
	정태연(64)	이미일(71)	유재환	이영해(의학 72)	정미령(교육 66)
간호대학	김명자(66)	장경선(75)	유혜자	손숙희(작곡 73)	이용선(제약 73)
간호학과	김화수(66)	식품영양학과	윤미정	심창교(불리 75)	강순열(가관 77)
유인숙(59)	이강희(66)	박종오(58)	이 숙	오경안(법학 75)	김인성(영문 80)
남상옥(62)	이기순(66)	계명혜(63)	이인숙	유수우(특교 77)	음은경(조소 82)
오나미혜(64)	강원자(67)	구소원(69)	이종원	유순금(법학 77)	임미송(약학 92)
김미경(66)	김영숙(67)	장선재(69)	임명숙	정해숙(영문 77)	한진경(장미 92)
김선애(80)	석귀덕(67)	편희숙(69)	정은희	이은경(화학 79)	김수정(기독 95)
임경희(80)	황혜자(67)	전정숙(71)	조은희	한인옥(식영 79)	박은경(유교 95)
류리나(10)	김경자(68)	이혜양(79)	최신영	정순임(식영 85)	남경화(국문 98)
김선미(18)	원사덕(68)	최진자(80)	최영희	최희윤(불문 85)	김보혜(경제 02)
김경미(19)	전두선(68)	손정미(82)	한영숙	나수영(의적 86)	배세윤(경영 02)
	박성숙(69)	이혜원(83)	홍경자	유희연(외교 86)	홍시내(커미부 02)
학대학	오정순(69)	조미숙(83)	홍은아	정향숙(사복 86)	안민영(소비자 09)
학과	전경숙(69)	이윤경(90)	불 명(94)	강진아(중문 94)	김도형(국문 10)
윤혜정(50)	신옥희(70)		정영주(8회)		오타와 300,000원
이항구(50)	박상은(71)	대학원	함인순(74)		일본 570,000원
김순자(51)	박정아(71)	유의순(76)			곽소준(사학 65)
전예실(51)	백창화(72)	김지원(08)			정정자(커미부 65)
최귀매(51)	이미애(79)	이수민(17)			정태영(생미 69)
오춘환(55)	황미경(79)				최영숙(체육 69)
고영수(57)	김성신(86)	교육대학원			고정희(장미 74)
김원숙(57)	정병화(88)	양수화(74)			김진희(약학 77)
김정순(57)	권진현(05)				김미혜(장미 82)
허인전(57)	제약학과	경영전문대학원			박경희(약학 82)
홍정옥(57)	황인더(74)	김현지(17)			세인트루이스 (364달러) 418,541원
문경희(58)	오용순(75)				신주리(장미 84)
김은희(59)	강옥수(76)	학과·연도 미상			송미연(커미부 86)
문희(59)	김영미(79)	강민영	김경인(동양 74)		황민경(영교 86)
박정애(59)	황경수(88)	곽혜경	최정숙(영교 74)		김덕희(도예 92)
신가균(59)		김경원	이수자(가정 63)		나정윤(동양 92)
윤혜숙(59)	생활환경대학	김광자	한정자(교육 63)		이록미(유교 93)
임영식(59)	가정과	김미애	조경선(영문 61)		김운천(평교원 96)
고순환(60)	이병림(55)	김성숙	김평자(영문 63)		김은영(커미부 01)
김보근(60)	김선영(59)	김수희	박금희(불리 76)		주소영(법학 02)
민경남(60)	전은수(60)	김순희	최영자(사회 77)		고나리(커미부 05)
신정현(60)	김영자(63)	김애자	김명석(작곡 79)		문춘자(알프스 09)
유선경(60)	남궁문숙(63)	김영미	나연희(경영 79)		자카르타 200,000원
이주화(60)	박영혜(63)	김인숙	황경숙(체육 79)		클리블랜드 344,952원
장현숙(60)	박혜경(63)	김종완	유숙영(법학 85)		토론토 565,289원
최혜경(60)	이영예(63)	김지은	윤지연(간호 85)		휴스턴 574,920원
			고선영(외교 86)		이명아(피아노 90)

이번 호에 실릴 예정이던 '새책 소식'은
지면 사정상 이번 호에 실지 못하고 2020년 <봄 호>(158호)에 실립니다

오픈뱅킹의 시작과 끝

신한SOL로 오픈하라!

앱 하나로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하는 오픈뱅킹시대
수수료 면제는 기본,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신한 쏠로 오픈뱅킹의 모든 혜택을 누리세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나의 자산을 모아
한 눈에 OK



타행 계좌에서
자금 이체도
수수료 없이 OK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산 분석하고
솔루션 제공까지 OK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9-2-3029호 (2019.10.24~2020.01.31)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쏠(SO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통행
 신한은행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혀락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 · 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증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

모두가 사랑하는 미니멜츠!

Everyone likes icecream,
Everyone will love MINIMELTS

미니멜츠는 고품질의 국내산 1등급 원유와 유가공품을 사용합니다.
HACCP 인증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 ✓ 차별화된 기술로 미니멜츠 동남아 및 유럽 수출!
- ✓ 안성, 음성 각각의 대형 제조공장으로 높은 생산성!
- ✓ 새로운 배합과 성분변경의 연구로 빅구슬 개발!



(주)동학식품 본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9호

TEL. 02.3281.7252 FAX. 02.3281.7256